



암 검진 안내

충무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대상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 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	6개월	간 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 : 양성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폐암	만 54세~만 74세 30갑년 이상 흡연자	2년	저선량 흉부 CT

* 비용부담은 본인부담 10% 해당자만 부담하고, 본인부담없음 해당자는 무료입니다.

* 직장인검진 대상자는 암검진과 1차검진 동시 실시 가능합니다.

cia 천안·아산충무병원 예약 및 문의

천안충무병원 일반검진실 041) 570-7556 / 7557 / 7569
041) 360-1153

아산충무병원 건강검진실 041) 536-6760 ~ 6763

천안충무병원 검진시간

평 일 08:30 ~ 16:00

토요일 08:30 ~ 11:00 까지 접수

아산충무병원 검진시간

평 일 08:30 ~ 16:00

토요일 08:30 ~ 11:00 까지 접수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YOUNG SEO MEDICAL FOUNDATION

사회복지법인 영서복지재단
YOUNG SEO SOCIAL WELFARE FOUNDATION

천안충무병원 041.570.7555 아산충무병원 041.536.6666



충무 마당



박성민

천안충무병원 가정의학과
건강검진상담, 소화기내시경,
비만클리닉, 금연클리닉,
피부질환 및 피부레이저, 성인병



김동희

아산충무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증재술, 두통,
두부외상, 어지럼증

충무 마당

2023
03-04



04	권두언 에디터레터	40	new wave 6 [의학상식] 고혈압환자에서의 급사 아산 심장내과 신현호 과장	68	충무뉴스 아산 정형외과 유재성과장 어깨 상완골 골절 치료법 논문 발표 영서원 노인회 300만원 기부
06	천안·아산충무병원 특화진료 소개	42	new wave 7 [의학상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아산 소화기내과 민선기 과장	70	협력병원 퍼스트힐 요양병원
17	천안·아산충무병원 종합검진센터 신규의료진 소개	46	부서탐방 천안 보건관리실 아산 41병동	72	외래진료안내
20	이달의 명의 천안 가정의학과 박성민 과장 아산 신경외과 김동희 과장	50	원내소식 천안 3주기 의료기관 인증획득 천안 인공신장실 확장공사 천안·아산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 아산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 천안 혈관센터		
24	new wave 1 [의학상식] 경도 인지 장애(MCI) 천안 신경과 최문성 과장	56	재단소식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충무원 영서원 충무노인복지센터		
26	new wave 2 [의학상식] 낭종(물혹) 천안 구강외과 김여갑 교수	62	슈퍼루키 천안 구매부 [최승엽] 아산 중환자실 [박도현]		
32	new wave 3 [의학상식] 대장암 수술후 재발 치료... 천안 종양내과 이승세 교수	64	칭찬합시다		
36	new wave 4 [의학상식] 뇌졸중 예방 천안 신경외과 박재원 과장				
38	new wave 5 [의학상식] 신경성 질병 아산 가정의학과 윤방부 회장				

2023년 3월!

또다시 봄은 우리들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봄이지만, 올해는 조금은 다른듯 합니다.
아니!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는 기대감에...
더 푸르고, 더 따뜻하고, 향기로울 것 같습니다.
3년이란 긴 세월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는 이제 한낱 풍토병으로 자리매김 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됐던 확진자 소식, 입원환자, 사망자 숫자 통계는 우리를 불안의 늪에 빠뜨렸고,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무행태를 유행시켰으며, 장기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생활고와 더불어 나라 전체의 경기침체로 이어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완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왜곡현상이
짙게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허나, 그래도 요번 봄은 희망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병에서 신음하던 환자가 환의를 벗고 멋진 옷으로 치장하고 병원 밖을 나가는 기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밖에 다른 문제도 항상 그랬듯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친애하는 천안, 아산 시민 여러분!

저희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도 새봄을 맞아 코로나 거점병원 및 전염병 전담 병동
시설을 일반환자 병동으로 개보수 공수를 하고 있으며 일부 부족한 시설, 인공신장실
증설 공사 및 척추센터 이전 및 약국 이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보다 깨끗하고, 선진화된 시설로 환자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인의료복합단지는 노인병원 중환자실을 개보수 하였으며, 새로이 병원 감염
환자들을 위한 병동을 신설하였고, 산뜻한 외장공사를 시행해 외벽누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올봄에는 새로이 단장한 노인병원, 충무원, 영서원과 함께 진달래, 개나리, 연산홍,
봄꽃들의 향연이 그 어느 때보다 볼만할 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천안,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올해는 그동안 웅크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진정한 봄기운을 마음껏 누려봄이 어떠실지요?
모든 것이 다 잘될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랑합니다!

의료원장 권영욱

천안충무병원

심혈관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심혈관센터

는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센터입니다.



심혈관센터 **강홍선** 센터장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현 심혈관센터 센터장
- 순환기학회 정보위원회 위원
- 한국심초음파학회 간행위원, 평의원
- 대한고혈압학회 간행위원, 부총무
-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보위원회 위원
- 내과학회 평생회원
- 대한노인의학회 평생회원
- 대한응급의학과학회 정회원



심장내과 **김철민** 교수

- 내과전문의
-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 심장초음파 지도전문의
- 가톨릭의과대학 대학원 내과학박사
- 가톨릭의과대학 성모병원 내과 레지던트
- 하버드의과대학 Brigham and Women's Hospital 순환기내과 research fellow
- 가톨릭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 가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내과과장
- 가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 센터장
- 가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 가톨릭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명예교수
- 전)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사장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심장학회 정회원
- 대한고혈압학회 정회원
- 한국심초음파학회 정회원
-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정태** 과장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 아주대학교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수료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임상강사
-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학 교실 성인 심장수술파트 임상강사
-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학 교실 조교수
- 미국 San Diego 종합병원 (USCD) 성인 심장 및 혈관수술 연수
-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학 교실 부교수
- 대한흉부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정맥학회
- 대한혈관외과학회
- 대한중환자의학회 평생회원 및 논문심사
- 대한투석접근학회 정회원



천안·아산충무병원 심혈관센터
천안충무병원 상담문의 **041-570-7555**
아산충무병원 상담문의 **041-536-6666**

아산충무병원

심혈관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대동맥중재시술, 말초혈관중재술,
승모판 확장술, 각종 심장질환



심혈관센터 **심원홍** 센터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 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분교(UCI) 심장학 교환교수
- 미국클리브랜드 크리닉(CCF) 심장혈관학 연수
- 미국드렉셀 의과대학원 외래교수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 중환자/심도자실장
- 세종병원 의학 연구소장
- 혈관 중재술연구회 회장
- 미국대학심장학회 정회원(FACC)
- 혈관중재술연구회
- 한국의학한림원 정회원
- 대한내과학회
- 대한순환기학회
- 심초음파학회



심장내과 **신현호** 교수

-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인턴/레지던트
- 경희대학교 대학원 내과학전공 의학박사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외래교수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가톨릭관동의대 교수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위스콘신의대 심장내과 연구의사
- 서울대학교 대한의사협회 의료경영 고위과정 수료
-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 이사장/회장
- 대한심장학회 논문심사위원
- 대한고혈압학회 총무이사/자문의원
- 대한비만학회 대사증후군위원회 위원장/회장
-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고문
- 심장대사증후군 학회 고문 역임



심장혈관흉부외과 **황정주** 과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연구강사
- 을지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조교수
-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외과 부교수
- 미국, UPMC 단기연수(2010)
- 호주 Alfred Hospital 단기연수(2015)
- 대한폐암학회 회원
- 흉부종양학회 회원
- 유럽중환자학회 회원
- 대한흉부외과학회 회원
- 외상술기교육연구학회 이사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 & 말초혈관중재시술



심장내과 **장기설** 과장

- 한양대학교병원 인턴
- 한양대학교병원 레지던트
-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임상강사
-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외래교수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심장학회 정회원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
- 대한초음파의학회 정회원
- 대한부정맥학회 정회원
- 대한고혈압학회 정회원



심장내과 **최대식** 과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외래교수
-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임상강사
- 대한심장학회 정회원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
- 대한중재시술학회 정회원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심초음파학회 정회원
- 대한부정맥학회 정회원
- 대한고혈압학회 정회원



심장내과 **이동훈** 과장

-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인턴
-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레지던트
- 분당서울대학교 심장혈관센터 임상강사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심부전학회 정회원
- 대한고혈압학회 정회원
- 대한심초음파학회 정회원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

천안충무병원

뇌혈관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뇌혈관센터

는 뇌경색, 뇌출혈, 치매, 두통, 어지럼증, 파킨슨병 등 뇌신경계질환을 치료하는 전문센터입니다.



뇌혈관센터 **이호근** 센터장

- 경희대학교병원 외래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현 천안충무병원 부원장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정회원



신경과 **최문성** 과장

- 부산대 의과대학 졸업
- 일본 소화대학 대학원 임상병리학박사
-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학교 신경과
알쯔하이머 크리닉임상펠로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임상교수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임상교수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
- 중앙대학교 의료원 임상교수
- 국제 혈관성 인지장애학회 정회원
- 국제 알쯔하이머병학회 정회원
- 대한 치매학회 회장



신경과 **이재성** 과장

- 뇌혈관내수술 인증의
- 임상신경생리(신경근전도 및 유발전위) 자격 인증의
- 경희의료원 신경과 인턴 / 레지던트 수료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
- 대한치매학회 정회원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정회원
- 대한뇌졸중학회 정회원
-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정회원
- 국제 알쯔하이머병학회 정회원

아산충무병원

뇌혈관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뇌혈관센터 **임정규** 센터장

- 뇌혈관내수술 인증의
-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수료
- 가톨릭 중앙의료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료
- 신경외과 전문의 취득
-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임상강사
- 대한 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 뇌혈관내수술학회 정회원
- 대한 뇌혈관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 뇌졸중학회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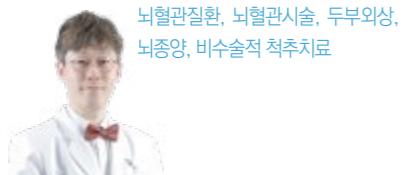
신경외과 **박강혁** 과장

- 뇌혈관내수술 인증의
-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인턴 수료
-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료
- 신경외과 전문의 취득
-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임상강사
- 대한 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 뇌혈관내수술학회 정회원
- 대한 뇌혈관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 뇌졸중학회 정회원
- 대한 노인신경외과학회 정회원



신경외과 **김동희** 과장

- 뇌혈관내수술 인증의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턴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레지던트
-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임상강사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정회원
- 대한뇌졸중학회 정회원
-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정회원



신경외과 **이상현** 과장

-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임상강사
- 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임상강사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뇌종양학회 정회원
- 두개저외과학회 종신회원
-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정회원
- 대한뇌졸중학회 정회원
- 대한두통학회 정회원
- 대한신경종양학회 정회원



신경외과 **김재현** 과장

- 뇌졸중시술 인증의
-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 경희의료원 인턴 수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료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의
-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정회원(뇌졸중시술 인증의)
-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회원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 대한뇌졸중학회 정회원



신경외과 **박재원** 과장

- 뇌졸중시술 인증의
-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임상강사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임상강사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임상조교수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회원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의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원



신경과 **홍기무** 과장

- 중앙보훈병원 신경과
- 아산시 명신경과의원 원장
- 대한 신경과학회 정회원
- 대한 뇌졸중학회 정회원
- 대한 두통학회 정회원
- 대한 치매학회 정회원



천안·아산충무병원 뇌혈관센터

천안충무병원 상담문의 **041-570-7555**

아산충무병원 상담문의 **041-536-6666**

천안충무병원

소화기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소화기센터

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질환을 차지하는 여러 소화기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최신 첨단 장비들을 이용하여 소화기 전문의들이 서로 협조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화기센터 **김병호** 센터장

- 소화기내과 전문의
-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화기내과 주임교수
- 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병원 통합경영정책실장
-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과장
-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 소장
- 서울대학교 의료경영고위과정(AHP) 이수
- 미국 알버트-아인슈타인 의대 교환교수
- EBS명의 - '침묵의 간' 당신을 위협하다 편 출연
- 前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 前 대한의학술지편집인협의회 부회장
- 前 대한내과학회 간행이사
- 前 대한소화기학회 편집이사
- 現 대한간학회 평의원
- 現 대한내과학회 평의원
- 現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



소화기내과 **정지현** 과장

- 소화기내과 전문의
- 경희의료원 인턴 수료
- 소화기 분과 전문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강동경희대병원 내과 레지던트 수료
-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생회원
- 대한간학회 정회원



소화기내과 **박범수** 과장

- 소화내시경 세부전문의
- 경희의료원 인턴 수료
- 소화기 분과 전문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소화기학회 정회원
-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정회원



소화기내과 **김새인** 과장

-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 소화내시경 세부전문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외래 조교수
- 이대목동병원 인턴 수료
- 이대목동병원 레지던트 수료
-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정회원



소화기내과 **이지영** 과장

- 내과전문의
- 내시경 세부전문의
-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 한양대학교병원 인턴 수료
- 한양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수료
- 한양대학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 아산충무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소화기학회 정회원
- 대한장연구학회 정회원
- 대한내시경학회 정회원

아산충무병원

소화기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소화기내과 **이정일** 센터장

- 경희의료원 내과 임상 강사
- 경희대 의대 내과 조교수
- Harvard대학 연구원
- 경희대 의대 내과 부교수
- 경희대 의대 내과 교수
-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과장
- 강동 경희대병원 소화기센터장
- 강동 경희대병원 내과부장
- 강동 경희대병원 기획진료부장
- 경희대 의대 명예교수
- 대한 간암 연구회 평생회원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평의원
- 대한소화기학회 정회원, 평의원
- 대한간학회 정회원, 평의원
- 대한간학회 간행이사
- 대한간학회 재무이사
- 대한간학회 감사
- 대한간학회 회장



소화기내과 **민선기** 과장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 경희의료원 인턴 수료
- 경희의료원 내과 레지던트 수료
- 대전 MBC 의료포털 자문위원
- 현)경희의료원 내과 외래교수
- 아산충무병원 건강검진 센터장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정회원
- 대한간학회 정회원



소화기내과 **설재일** 과장

- 의학박사
- 경희의료원 인턴 수료
- 삼육서울병원 내과 전공의
- 국군대전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정회원
- 대한간학회 정회원



소화기내과 **이정록** 과장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 강동경희대병원 내과 레지던트 수료
-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정회원
- 대한소화기학회 정회원



천안·아산충무병원 소화기센터

천안충무병원 상담문의

041-570-7555

아산충무병원상담문의

041-536-6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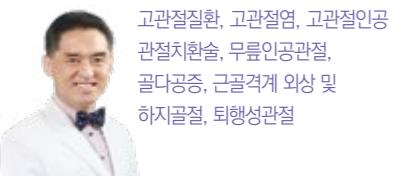
천안충무병원

관절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관절센터

는 손상된 관절과 연골을 완벽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에서 치료까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천안·아산충무병원 관절센터는 관절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풍부한 임상경력과 집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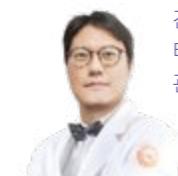
관절센터 안덕호 센터장

-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전문의
- 경희대학교 외과대학원 외과교수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원 외과교수
- 텍사스 인공관절센터 연수
- 현 천안충무병원 부원장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 대한정형외과 대전충남지회 이사
- 대한고관절학회 회원
- 대한골절학회 회원



정형외과 김광현 과장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인턴수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레지던트 수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임상강사
- 대한 견주관절 학회 정회원
- 대한 슬관절 학회 정회원



정형외과 어일주 과장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수련의
- 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정형외과 전공의
- 삼성서울병원 슬관절 전임의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슬관절학회 정회원
- 대한견주관절학회 평생회원
- 대한관절경학회 정회원
- 대한스포츠의학회 정회원



정형외과 정세훈 과장

- 가톨릭의과대학 인턴 수료
- 가톨릭의과대학 레지던트 수료
- 가톨릭의과대학 임상강사
- AO Trauma Basic Principles course 수료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TPI 과정 수료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고관절학회 정회원
- 대한슬관절학회 정회원



천안충무병원 관절센터
상담문의 041-570-7581

아산충무병원

관절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정형외과 안재용 과장

-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형외과 박사
-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인턴
-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레지던트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정형외과 전임강사
- 성균대학교 삼성제일병원 정형외과 교수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회지 편집위원
- 대한척추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고관절학회 정회원



정형외과 조성우 과장

- 경희의료원 인턴/레지던트 수료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상강사
- 경희대학교 임상강사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정형외과 전임강사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척추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회원



정형외과 김연준 과장

- 단국대학교 인턴/레지던트 수료
- 단국대학교 정형외과 임상강사
- 단국대학교 외상센터 임상강사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슬관절학회 정회원
- 대한통증의학회 회원



정형외과 황창환 과장

- 단국대학교 인턴
- 단국대학교 레지던트
- 단국대학교 정형외과 임상강사
- 단국대학교 외상센터 임상강사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척추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견주관절학회 정회원
- 대한슬관절학회 정회원
- 대한관절경학회 정회원
- 대한창상학회 정회원



정형외과 유재성 과장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 카톨릭대학교 정형외과 의학박사
-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 팀닥터
- 스포츠의학 분과 전문의
- International Society of Arthroscopy, Knee Surgery and Orthopaedic Sports Medicine Member
-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심사위원
-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Surgery and Research 심사위원
- BMD musculoskeletal disorder 심사위원
- Journal of Arthroscopy and Joint Surgery 심사위원
-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심사위원
- Applied Clinical Research, Clinical Trials and Regulatory Affairs 심사위원
- MDPI Diagnostics 심사위원
-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편집위원
- Annals of Plastic and Aesthetic Surgery 편집위원
- Orthopedic Surgery and Rehabilitation Journal 편집위원
- Journal of Surgery and Surgical Technique 편집위원
- Journal of Environmental & Life Sciences 편집위원
- Musculoskeletal science & Practice 편집위원
- Annals of Surgical Research 편집위원
- CPQ Orthopaedics 편집위원
- World Journal of Surgical Oncology 심사위원
-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ology 심사위원
- Orthopaedic surgery 심사위원
- Brain sciences 심사위원
- Chinese Journal of Traumatology 심사위원
- Annals of Translational Medicine 심사위원
- Sports Journal 심사위원
- Healthcare 심사위원
-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심사위원
- Case reports in Orthopaedics 심사위원
- Advances in Orthopaedics 심사위원
- Orthopedic Research and Reviews 심사위원
-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심사위원
- Heliyon 심사위원
- Journal of Neurosurgical Science 심사위원
- Medicina 심사위원
-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심사위원
- Journal of Investigative Surgery 심사위원
- International Congress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연자
- Academic Congress of Asian Shoulder and Elbow Association 연자
- Conmed Linvatec Asia Arthroscopy Symposium 연자
- Surgical Techniques Development 심사위원
- Reports 심사위원
- Technium science 심사위원



아산충무병원 관절센터
상담문의 041-536-6647

아산충무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척추센터

는 과 별 통합진료시스템을 갖추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 부위를 최소화시켜, 본래의 척추상태를 유지하는 치료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척추센터 **하호균** 센터장

- 한양대학교병원 인턴 / 신경외과 전공의, 전문의
-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부교수 및 과장
- 을지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및 과장
-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장
- 건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및 과장
- 고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 미국 피즈버그 의과대학 - 최소침습 미세 신경외과 수술센터 연구
- 현 대한최소침습 척추신경외과학회 특별상임 이사
- 前 대한신경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회장
- 前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고문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이사
- 대한경추연구회 운영위원
- AOSpine Korea Neuro-Education Officer, Council member



척추과 **김진성** 과장

- 서울백병원 인턴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레지던트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상강사
- 경희대학교 임상강사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교수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침소침습척추학회 정회원
-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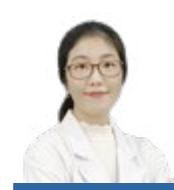
정형외과 **조성우** 과장

- 경희의료원 인턴/레지던트 수료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상강사
- 경희대학교 임상강사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침소침습척추학회 정회원
-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원



정형외과 **황창환** 과장

- 단국대학교 인턴
- 단국대학교 레지던트
- 단국대학교 정형외과 임상강사
- 단국대학교 외상센터 임상강사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척추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경주관절학회 정회원
- 대한슬관절학회 정회원
- 대한관절경학회 정회원
- 대한창상학회 정회원



재활의학과 **전희원** 과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병원 인턴 수료
-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료
- 전) 성복서울재활요양병원 재활의학 과장
-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아산충무병원 척추센터
상담문의 041-536-6666

천안·아산충무병원

혈관치료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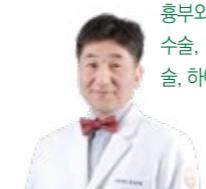
혈관치료센터

에서는 환자의 혈관 상태 전반에 대한 초음파, 혈관촬영술, 풍선확장술, 혈전 제거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일반적인 혈관 관리, 통증 조절, 부종 관리를 위해 최첨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혈관치료센터 **이도연** 센터장

- 인터벤션 시술 인증의
- 연세대 진단방사선과 임상강사
- University of Michigan Visiting professor
- 연세대 진단방사선과 조교수
- 연세대 진단방사선과 부교수
- 연세대 영상의학교실 교수
- EBS명의 - '수술없이 완치를 꿈꾼다' 편 출연
- 대한방사선의학회
- 대한초음파의학회
- Radiologic Society of North America
- Society of Cardio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 Cardio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Society of Europe
- 대동맥용 Stent-graft의 개발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정태** 과장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 아주대학교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수료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임상강사
-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실 성인 심장수술파트 임상강사
-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학 교실 조교수
- 미국 San Diego 종합병원 (USCD) 성인심장 및 혈관수술 연수
-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학 교실 부교수
- 대한정맥학회
- 대한혈관외과학회
- 대한증환자외과학회 평생회원 및 논문심사
- 대한투석접근학회 정회원



심장혈관흉부외과 **황정주** 과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연구강사
- 을지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조교수
-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외과 부교수
- 미국, UPMC 단기연수(2010)
- 호주 Alfred Hospital 단기연수(2015)
- 대한폐암학회 회원
- 흉부종양학회 회원
- 유럽중환자학회 회원
- 대한흉부외과학회 회원
- 외상술기교육연구학회 이사



영상의학과 **정구성** 과장

- 인터벤션 시술 인증의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인턴 수료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수료
-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임상강사
- 대한인터벤션 영상의학회 정회원



영상의학과 **하일현** 과장

- 건국대학교 병원 인턴 수료
- 건국대학교 병원 레지던트 수료
- 건국대학교 병원 임상강사
- 대한영상의학회 정회원
- 대한인터벤션 영상의학회 정회원



천안·아산충무병원 혈관치료센터
상담문의 010-8673-3119

천안·아산충무병원

종합검진센터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종합검진센터

는 고객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검진센터입니다. 건강검진부터 결과관리까지 전문의료인의 원스톱 헬스 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아산충무병원에서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건강검진서비스를 경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직업환경의학과 **김영준** 센터장

- 가톨릭 중앙 의료원 수련
- 결핵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국립공주결핵병원 흉부내과장
- 현 직업환경의학센터 소장



직업환경의학과 **이철현** 과장

- 순천향대학교병원 인턴 수료
- 질병관리본부 예방의학 레지던트



직업환경의학과 **안세진** 과장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전공의 수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정회원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외래협의회 정회원
- 대한건설보건학회 정회원



가정의학과 **윤방부** 교수

- 2006년 장한 한국인상 수상
- 한국 가정의학 창시자
- 국내 최초 AIDS 진단
- 미국미네소타 대학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UN지정의사
- 대한가정의학회 창설자 및 초대이사장 역임
- 세계가정의학회 부회장



가정의학과 **유진호** 과장

- 서울백병원 인턴
- 경희대학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 경희대학교 가정의학과 임상강사
- 경희대학교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 대한가정의학회 정회원
-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교현** 과장

- 삼성서울병원 인턴
-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레지던트
- 육군 제3군사령부 예방의학장교(대위)
-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장교(대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천안·아산충무병원 건강검진센터

천안충무병원 상담문의 **041-570-7556/7557/7569**

아산충무병원 상담문의 **041-536-6760/6763**

충무병원 종합검진센터

CHUNG-MU HOSPITAL HEALTH PROMOTION CENTER



뇌
뇌출증(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기타 뇌질환



위내시경
위암, 위증, 위궤양,
식도, 심이지장 질환



대장내시경
대장암, 용종, 궤양 등
대장 항문 질환



심장혈관조영 CT
심장의 관상동맥 혈착,
심근경색 및 선천성 구조적 질환,
심낭삼출, 대동맥 이상 등
심장질환의 검사

기본종합검진
소화기정밀종합검진
뇌혈관정밀종합검진
VIP숙박종합검진
VVIP 전신암종합검진

심혈관종합검진
폐정밀종합검진
뇌혈관정밀종합검진
척추정밀종합검진
추가맞춤종합검진

예비부부종합검진
프리미엄종합검진
VIP숙박종합검진
유전자 및 세포활성도검진

천안충무병원 예약 및 문의 www.cmhos.co.kr

041.570.7650 / 041.570.7673

충남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 3길 8 천안충무병원 본관 3층 종합검진센터

아산충무병원 예약 및 문의 www.asancm.co.kr

041.336.6340-4

충남 아산시 문화로 381 아산충무병원 신관 3층 종합검진센터

천안충무병원 신규 의료진 소개

김교현 과장
직업환경의학과
김영관리전문의사, 예방의학, 사업장 보건관리



“

- 삼성서울병원 인턴
-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레지던트
- 육군 제3군사령부 예방의학장교(대위)
-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장교(대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

조성호 과장
신장내과
보증, 고혈압, 만성콩팥병, 혈액투석, 신장질환



“

-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수료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레지던트 수료
- 인하병원 신장내과 임상강사

”

하일현 과장
영상의학과
비수술적 혈관질환 치료, 비수술적 종양치료, 영상진단 (종양질환, 혈관질환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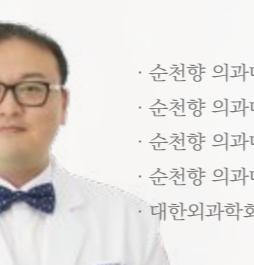


“

- 건국대학교 병원 인턴수료
- 건국대학교 병원 레지던트 수료
- 건국대학교 병원 임상강사
- 대한영상의학회 정회원
- 대한인터벤션 영상의학회 정회원

”

홍성훈 과장
유방갑상선외과
유방·갑상선



“

- 순천향 의과대학 천안병원 수련의 수료
- 순천향 의과대학 천안병원 전공의 수료
- 순천향 의과대학 천안병원 임상강사
- 순천향 의과대학 천안병원 임상조교수
- 대한외과학회 지도전문의
-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
- 대한유방암학회 정회원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외과초음파 학회 정회원
- 미국유방외과 학회 연수

”

안승배 과장
응급의학과
응급의료체계, 중환자응급, 외상응급, 중독학, 소아응급, 소생학, 내외과응급, 산부인과응급



“

- 대전 을지대병원 인턴수료
- 대전 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수료
- 대한응급의학회 정회원
- 대한외상학회 정회원
- 소방 구급의료 지도의사

”

아산충무병원 신규 의료진 소개

이충현 과장
비뇨의학과
요로결석, 요로감염, 남성의학, 전립선질환, 음낭 및 음경질환



“

- 경희대학교 의대병원 인턴
- 경희대학교 의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 경희대학교 의대병원 비뇨의학과 임상강사 / 교수
-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
- 대한남성과학회 정회원
- 미국 조지타운 대학 연수

”

김형천 과장
영상의학과
영상진단 판독, 초음파, 비침습적 중재술 (영상유도, 종양치료 및 혈관치료)



“

- 건양대학교병원 인턴
- 건양대학교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 삼성서울병원 임상강사 (인터벤션영상의학)
- 건양대학교병원 임상조교수 (인터벤션영상의학)
- 대한영상의학회 정회원
-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정회원
- 인터벤션 시술 인증의

”

박소윤 과장
영상의학과
영상진단 판독, 초음파



“

- 순천향의과대학 졸업
- 삼성서울병원 인턴
-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임상강사
- 대한영상의학회 정회원

”

송명성 과장
치과
통합치의학, 소아치과, 치주질환, 보존, 보철, 임플란트



“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보건복지부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치과 과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교육 이수
- 대한통합치과학회 정회원

”



이달의 명의

천안충무병원 가정의학과 박성민 과장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충무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박성민입니다. 성균관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주로 어떤 진료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제가 맡은 진료분야는 주로 검진 위대장내시경과 건강검진 결과상담입니다. 그외 피부, 비만, 금연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안충무병원 가정의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들께 설명하는 일을 합니다. 보통 그분들은 다른 과 의사가 검진한 결과를 전달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 의사가 직접 검사를 수행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과에서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직접 위,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본인이 검진한 결과를 직접 설명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덜 중요한 검진 결과로 과잉 진료하는 일도, 중요한 소견을 놓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자긍심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일은 꽤 지루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검진 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가끔씩 아무 증상 없는 사람이 큰병의 조짐을 보이는 결과를 받아들곤 하십니다. 만일 그 병이 굉장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있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검진에서 중요 질환을 발견했음에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안충무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안충무병원은 끊임없이 진료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진취적인 병원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자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 노력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빅5병원에서 수련받은 의사들, 각 대학병원의 교수진 등을 계속 초빙하여 의료계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천안충무병원만의 또다른 장점 중 하나는 문진-검사-치료-추적관찰로 이어지는 과정이 대학병원에 비해 대단히 짧습니다. 이 말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거나 여러 진료과를 왔다갔다하는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충무병원은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의 명의

아산충무병원 신경외과 김동희 과장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충무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인턴 및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수련하였습니다. 이후에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3년간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2년간 뇌혈관파트 전임의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에는 천안충무병원에서, 2020년부터는 아산충무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주로 어떤 진료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뇌혈관 파트 세부 전문의로서 뇌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뇌동정맥기형 등)과 관련된 수술 및 혈관 내 시술을 시행하며, 이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에 대한 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통, 어지럼증, 안면마비 등에 대한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아산충무병원 신경외과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아산충무병원 신경외과에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은 3명의 뇌혈관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서로 돌아가면서 24시간 항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뇌와 관련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의에게 신속하게 치료 및 수술을 시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자긍심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내원 시에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분이 회복되어 퇴원하시거나 퇴원 시보다 더 호전되어 외래에 내원하셨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뇌출혈 및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뇌에 손상을 받게 되면 심한 신경학적 증상(편마비, 언어마비, 의식저하 등)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중환자실 및 일반병실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합니다. 꾸준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의 증상이 점점 호전되어 걷지 못하던 분이 걷게 되시거나, 의식이 없던 분이 의식을 회복하여 보호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 그동안 밤낮없이 일하면서 쌓였던 피로가 사라지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진 시에나 외래 진료 시에 잘 치료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아산충무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산충무병원 신경외과에는 다수의 경험을 쌓은 뇌혈관 전문의 3명이 항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와 관련된 이상 증상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심을 다하여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의 이해와 조기 발견의 중요성

천안충무병원 신경과 최문성 과장



남자 77세 김OO씨는 최근에 사용하는 물건을 둔 곳을 찾지 못하고 사소한 약속은 잊거나 뒤늦게 생각나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오는 날에도 약속 시간이 헛갈려 검사 시간이 늦었다. 진찰을 위해 대화를 할 때도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머뭇거렸고 질문에 부적절하게 대답하는 일도 있었다.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

병원에서는 인지기능을 검사하였고, 나이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에 비교하여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는 장애가 없으므로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 인지기능 장애로 평가하고 치매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상세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고혈압, 고호모시스테인혈증, 흡연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며, 뇌영상 검사에서 여러 개의 열공성 뇌경색(작은 뇌경색을 말함)이 발견되었다. 아밀로이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Amyloid PET)상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항혈소판제, 비타민 B 복합제와 은행잎 추출물을 처방하였고 담배를 끊도록 권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활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험인자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기억력은 이전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일상생활에 별다른 장애는 없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집안일을 잘 처리하며 지내고 있다.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의 전 임상 상태로 정상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중간 단계이다. 즉 인지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지만 일상 생활의 저하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을 추적 관찰해 보면 매년 10-15% 정도가 치매로 진행하는 데, 이는 65세 이상의 정상 노인의 연간 치매 발병율인 1-2%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8년 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치매의 고위험군인 경도 인지장애 유병율은 24.08%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로의 전환율이 가장 높은 유형인 기억 상실성 다중영역 경도 인지장애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경도 인지장애의 43%를 차지하였다. 최근 역학 조사에 의하면 중증 치매환자의 1년간 의료비용은 경도치매 환자의 8배 달하여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의 전환을 늦춘다면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아형은 기억성 경도 인지장애(Amnesic MCI)로 기억장애가 있지만 일상 생활 유지기능은 정상인 경우를 말하며 빈도상 가장 많습니다. 두번째 아형은 비기억성 경도 인지장애(Non-Amnesic MCI)로 방향감각/시공간기능, 실행기능 또는 언어기능 등과 같이 기억력 이외의 다른 영역의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알츠하이머병외의 다른 치매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도 감별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성 경도 인지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억저하에 대한 증상 호소
(환자 또는 보호자가 주로 제시)
2. 검사상 객관적인 기억력의 장애가 있을 때
3. 일상생활기능은 정상이거나 약간 저하
4. 치매의 진단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때.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된 환자에서 진행과 관련된 최근의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알츠하이머병 신경영상 계획(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ADNI) 연구에서 최근 10년 동안 기억성 경도 인지장애를 활발하게 평가하였다. 핵자기공명촬영(MRI)상 내측두엽의 위축(Medial Temporal lobe atrophy), 뇌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상 뇌대사가 내측두엽에 있는 경우는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

Fig.1은 정상인에서 경도인지장애로 치매까지 핵자기공명 촬영(MRI),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FDG-PET), 아밀로이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Amyloid PET), 새로운 영상기법인 타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Tau PET)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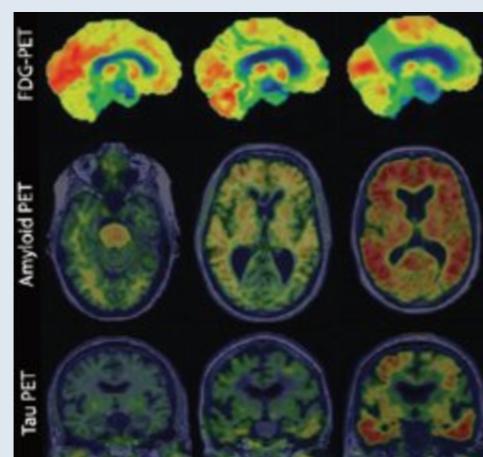


Fig.1 Cognitive Normal: 정상인, Mild Cognitive Impairment:경도인지장애, Dementia:치매

여러 연구에서 아밀로이드가 양성인 경도인지장애는 음성인 경도인지장애보다 치매로 전환되는 위험도가 5~7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의 존재 유무는 치매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아밀로이드 양성이 나을 확률은 50% 정도인데, APOE ε4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는 양성을 80%에 달하고, APOE ε4가 없는 경우는 양성을 20% 정도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기억성 경도인지장애에서 타우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Tau PET)상 타우 단백이 내측두엽(medial temporal lobe)바깥쪽으로 전파시 일초하이머병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의 진단기준에 뇌영상이나 뇌척수액, 혈액의 생물표지자를 포함시키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치매로 진행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물표지자에 대한 기준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도 인지장애를 예방하고 발병위험 또는 진행 위험성이 높은 인자를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좋은 생활 습관이 몸에 배도록 최선의 노력 하는 것이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치매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경도인지장애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치매예방의 골든타임입니다. 최근에는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새로운 약물이 출시 된다는 보고가 있어 조기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낭종(물혹)

천안충무병원 구강외과 김여갑 교수



어느 날 치과에 찾아온 환자와의 대화입니다.

- 환자: 입술에 뭔가 말랑말랑한 것이 생겼어요.
- 치과의사: 점점 커져요. 저절로 터질 때도 있는데, 터지면 또 다시 생겨요. 바늘로 찔러서 터트린 경우도 있었어요(그림 1).
- 치과의사: 바늘로 찌르면 안 좋아요.
- 환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다고 없어지지도 않자나요?
- 환자: 네. 맞아요. 며칠 지나면 또 생겨요.
- 치과의사: 아픈 적이 있나요?
- 환자: 아뇨, 아프지는 않아요. 자꾸 씹혀서 불편해요.
- 환자: 요새 주위에 암에 걸린 사람도 많은데 암이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그림 1] 아래 입술 오른쪽에 발생된 점액종. 점막 하방에 발생되며, 둥글고, 투명하며, 약간 청색으로 유동성이며, 점액이 차 있다. 크기는 다양하다. 치료 방법은 완전히 적출해내는 것이다.

환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재발되나요? 재발될 수 있습니다. 점액종의 발생원인은 입술을 지속적으로 깨무는 등 계속 하여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림 2] 구강저(혀밑)에 발생된 가막종이다. 개구리 배 모양으로 볼록하며, 혀밑샘(침샘)에서 주로 발생된다. 통증도 없이 팽팽하게 커지며, 파동성으로 점액이 차 있다. 치료방법은 개방술로 창문을 만들어 점액이 빠져나오게 하면 점점 작아져 낫게 된다.



대개의 경우 낭종(물혹)의 일종이다. 낭종은 구강 내, 외에 연조직이나 턱뼈 등 어디에서나 생긴다. 위의 경우는 입술과 혀 밑 등 연조직에 생겨서 환자 스스로가 불편한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턱뼈에 생기는 것은 상당한 크기로 커지지 않으면 증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더구나 낭종은 6~7세 어린이부터 7~80세 노년층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발생되므로 평소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필요하다. 턱뼈에 생기는 낭종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낭종은 치아와 관련이 되어 발생되는 치계성과 치아와는 상관없이 발생되는 비치계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턱뼈에 발생되는 낭종 중 치계성 낭종을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3. 낭종의 진단

- 1) 문진: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병소의 진행과정을 확인한다.
- 2) 시진: 환자를 직접 검진하고, 병소의 상태를 자세히,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 과정이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 3) X-선 사진 촬영: 턱뼈에 발생되는 경우 대개 명확하게 관찰되지만(그림 4), 연조직에 발생되었을 때는 X-선 사진에서 관찰되지 않으므로, 때로 조영제나 빙사선볼트파스인 재료를 주입하고 촬영하기도 한다.
- 4) 조직검사: 진단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그림 7). 수술 전 병소의 일부를 떼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수술 후 적출된 병소를 가지고 검사하기도 한다. 수술 후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1. 낭종이란?

구강 내 협점막, 입술, 피부 같은 연조직이나 턱뼈와 같은 경조직에 생기는 공동(빈공간)으로 액체나 점액모양의 액체 또는 기체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공동의 내면은 결체직 또는 상피조직 막으로 덮여있다. 연조직에 발생 시 피낭화되어 있어 유동적이며, 턱뼈에 발생 시 경계가 명확하다.

2. 낭종의 종류

낭종이 발생되는 부위에 따른 분류방법을 먼저 알아본다.

- 1) 구강, 안면, 목에 발생되는 낭종
- 2) 턱뼈에 발생되는 낭종
- 3) 상악동에 발생되는 낭종

4. 임상소견

- 1) 낭종은 팽창성으로 서서히 커진다. 주위 조직에서 삼투압으로 액체가 낭종 내로 들어와서 풍선에 물이 차듯이 서서히

커진다.

2) 앞서 환자와의 대화에서도 뺏듯이 일반적으로 통증은 물론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다. 구강 내 점막이나 피부 표면에 생기면(표재성)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턱뼈에 발생된 경우 낭종이 커져서 치아가 경사되거나, 턱뼈가 팽창될 때에 비로소 알 수 있다. 이외에 충치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이유로 치과에 치료 받으러 왔다가 방사선 촬영 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 염발음: 빠각빠각하는 소리가 난다. 턱뼈에 발생된 경우 두꺼운 치밀골이 달걀껍질처럼 얇아져서 누르면 소리가 난다. 달걀껍질은 깨지겠지만 뼈는 탄력성이 있고, 낭종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서 깨지기보다 들어갔다 나왔다하면서 소리를 낸다.

4) 낭종이 커지면서 주위의 치아들을 밀어서 치아들이 기울어지게 되며, 때로 치아를 원래 위치에서 먼 곳으로 밀어내기도 한다(그림 4, 11, 12). 즉 치아의 전위가 생기게 된다.

5) 파동성: 낭종이 더 커져서 턱뼈의 치밀골이 완전히 흡수되면 낭종피막이 노출되어 물풍선처럼 파동을 느낄 수 있다

(그림 5).

5. 턱뼈에 발생된 경우 X-선 소견

1) 턱뼈에 방사선투과상의 골 결손부가 보이며 팽창성으로 커지므로 경계가 둥글고, 평활하며, 포도송이 모양의 공동이 여러 개 관찰되기도 한다(그림 6, 10, 12, 15).

2) 방사선투과상 내면에 백선이 나타난다. 낭종의 특징적인 소견이다(그림 10, 15).

3) 낭종에 염증이 생기면 병소의 경계부위 백선이 소실되고, 불규칙해진다(그림 4).

6. 치료방법

1) 완전 적출술

① 1차 봉합술: 낭종이 비교적 작은 경우 완전적출하고 바로 봉합하는 방법(그림 3).

② 개방술: 낭종 적출 후 병소를 열어놓는 방법. 낭종이 클 경우 1차 봉합을 하지 않고, 2차 치유를 위하여 창문을 유지시킨다. 완전적출술의 장점은 낭종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과 치유가 빠르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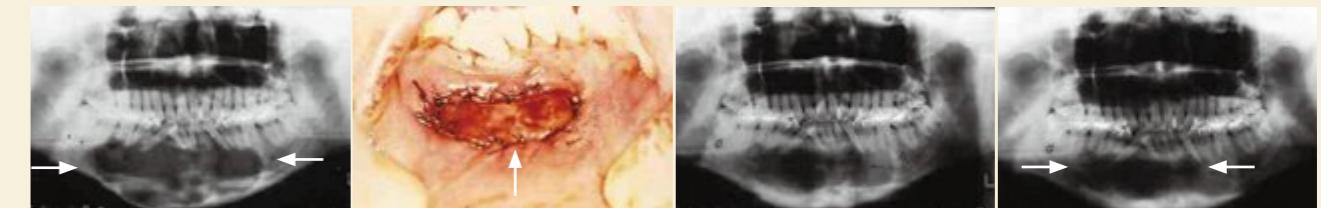
2) 개방술: 낭종을 적출하지 않고 열어 놓는 방법(그림 2, 4). 개방술의 장점은 낭종이 클 때 수술 시 초래될 수 있는 주위의 치아 등 중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시행하며, 수술 시 수술 부위가 비교적 작고, 수술방법이 비교적 쉽다는 점이다. 단점은 치유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3) 절개 및 배농: 절개하여 낭종 내 액체가 지속적으로 빠지게 하여 낭종을 작게 하는 방법.

4) Waldron's two stage operation : 절개나 개방술을 먼저 시행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낭종이 적어진 후, 완전적출술을 시행하는 방법.



[그림 3] 적출된 낭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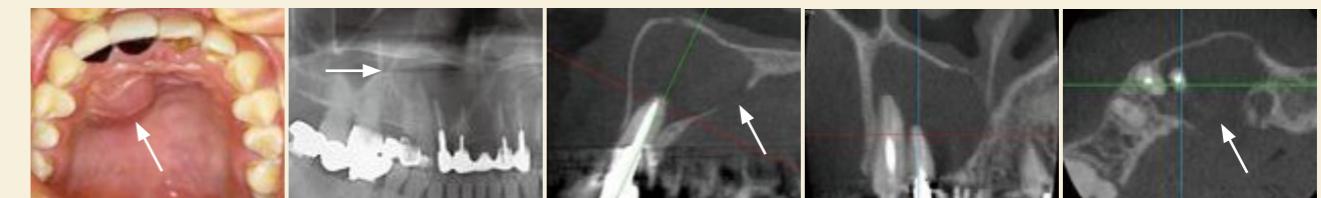
[그림 4] 하악 전치부와 양측 골체부까지 커진 거대낭종으로, 병소에 포함된 치아들이 좌우측으로 경사되어 있다. 경사되었던 치아들은 수술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낭종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바로 이것이 개방술의 장점이다.

■ 치근단 낭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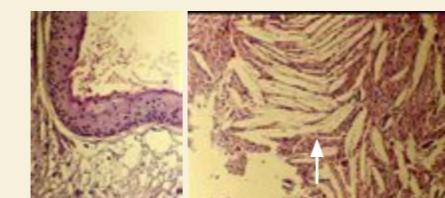
치아의 타진반응이 있다. 심한 충치가 있으며, 치수는 실활되며, 이전에 통증을 경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림 5] 상악 좌우측 중절치가 변색되어있다. 상악 전치부 전정부가 팽창되어 있으며, 치은을 상방으로 제쳤을 때 하얗게 낭종벽이 노출된 모습으로 측진 시 파동을 느낄 수 있다.



[그림 6] 상악 우측 중절치와 측절치에 치관 보철치료가 되어 있는 환자로 구개측이 팽창되어 있으며, 치근단 상방에 커다란 방사선투과성 소견을 보이고, 주위 치밀골은 점점 팽창되어 얇아지게 된다. 특히 구개측 치밀골이 흡수로 천공되어 있다.



[그림 7] 낭종의 내벽이 위와 같은 상피층으로 덮여있다. 방추형의 흰 공간은 콜레스테롤 크래프트로서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공간이다. 전형적인 낭종의 병리조직소견이다.

■ 치근주위 낭종



[그림 8] 치근 주위에 낭종이 발생. 하악 좌측 사랑니 치근 옆에 발생된 낭종이다.

■ 잔존 낭종(그림 9)

치아를 발치한 후에 남아서 커진 낭종이다.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된다.



[그림 9] 상악 좌측 전치부에 둑근 방사선 투과성 소견이 보인다. 낭종 적출 후의 모습이며, 한 덩어리로 적출된 낭종이다.

■ 함치성 낭종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낭종으로 치아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10). 주로 20~30대에서 하악 사랑니 부위와 상악 견치부위에 주로 발생된다.



[그림 10] 함치성 낭종의 형성기전과 하악 우측 사랑니에 발생된 함치성 낭종

그림 11] 하악 우측 매복 사랑니에 발생된 함치성 낭종의 CT사진으로, 매복 사랑니가 후방으로 밀려나 있으며, 낭종 주위의 치밀골이 얇아져 있으며, 설 측 치밀골은 뚫려있다.



[그림 12] 17세 남자 환자로 발육 중인 하악 좌측의 사랑니에 함치성 낭종이 발생되어 사랑니가 하악각부위까지 전위될 만큼 커져서 내원하였다. 낭종적출술 후 각각 2개월 후, 그리고 5개월 후의 X-선 사진으로 수술부위가 골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 30세 남자 환자로 초진 시와 1년 6개월 후의 X-선 사진으로 낭종이 커짐에 따라 하악 좌측 사랑니가 후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매복된 사랑니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낭종 등의 병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경우를 보면 낭종이 커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9세 어린이의 하악 좌측 견치부위에 발생한 함치성 낭종으로, 턱부 위가 부어있으며, 하악 전치부 전정부가 불록하게 팽창되어 있다. X-사진에서 커다란 방사선 투과성 병소 속에 성장 중인 견치가 하방으로 밀려나있으며, 인접해 있는 치아들도 밀려서 경사진 모습이다.



[그림 15] 33세 남자 환자로 하악 좌, 우측 하악지와 우측 골체부에 낭종이 포도송이처럼 다발성으로 생겨 있다.



[그림 16] 7세 남자 환자로서 우측 중안면부의 약간의 종창을 보이고 있으며, 상악 우측 제2유구치의 만기 잔존과 치아 배열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합용 X-선 사진에서 광범위한 방사선 투과성 소견을 보이며, 치아의 경사도 볼 수 있다. 매복 전위된 상악 우측 제2소구치를 포함한 적출된 낭종의 모습.

대장암 수술후 재발되어 치료한 경우 2례

천안충무병원 종양내과 이승세 교수



대장암에 대하여

1. 대장의 기능

회장의 끝부분에서 항문까지 이르는 장기로서 결장과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길이는 약 150cm이며, 대장의 주 기능은 전해질, 지방산 등을 흡수하고, 액체성 장 내용물의 수분을 흡수하여 반고형성 변으로 전환시키며, 변을 저장하고, 배변에 관여하는 기능을 한다.

2. 대장암의 정의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고 결장은 다시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에스(S)결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 직장암이라고 한다.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S상 결장과 직장이다.

3. 대장암의 원인

대장암의 원인으로는 우선 전체 대장암의 약 10~30%를 차지하는 유전성 요인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고 미리 원인을 피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4. 관련통계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47,952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 중 대장암(C18~C20)은 남녀를 합쳐 27,877건으로 전체의 11.2%로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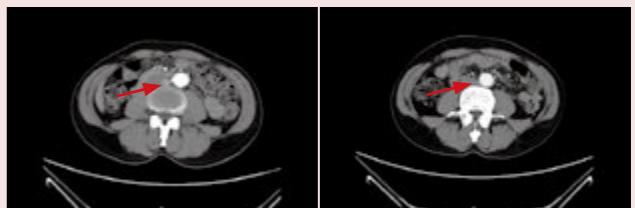


[사진1]

[사진2]

5. 대장암의 병기 분류 및 예후(5년 생존율)

- 1기 (90-100%) 암세포가 점막하층과 근육층에 국한되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 2기 (70-85%) 암세포가 장막하층과 장막층에 국한 혹은 주위장기침습이 있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 3기 (50-60%)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 4기 (5-20%) 대장암이 우리 몸의 다른 장기(간, 폐 등)로 전이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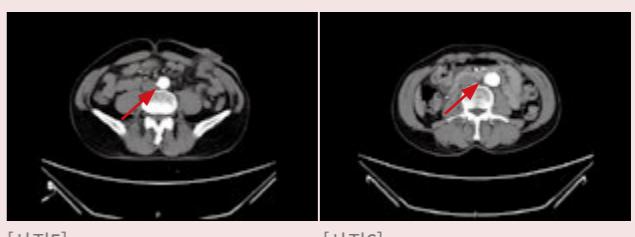


[사진3]

[사진4]

본원에서 대장암 치료 후 복강내 임파선에 재발한 경우

남자 65세 환자로 병기는 3기 후기 이면서 대장 천공이 있어 2016년 5월 초 본원에서 수술 하였다. 수술 후 2016년 5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1일 까지 12차에 걸쳐 보조항암요법을 마쳤다. 이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하였다. 3년째 시행된 복부 전산촬영의 추적검사(2019년 7월 10일)에서 복강내 임파선에 재발된 소견이 보였다. 또한 전신 PET CT사에서도 동일 부위에 동위원소 섭취가 증가되는 소견을 보인다.(사진1,2,3)



[사진5]

[사진6]

항암요법을 시작하고 이후에 경과에 재수술 예정으로 계획하였다. 6차 항암요법 후(2019년 10월 28일) 복부 전산촬영 추적검사상 이전에 보이던 복강내 임파선이 거의 소실된 소견을 보였다.(사진3,4)

이후 계속하여 12차 항암요법을 한 후(2020년 1월 17일) 시행한 복부전산촬영상에서는 복강내 임파선이 완전 소실된 소견(사진5)을 보여 수술 없이 추적검사만 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14일 복부 전산촬영검사에서도 재발이 되지 않고(사진6)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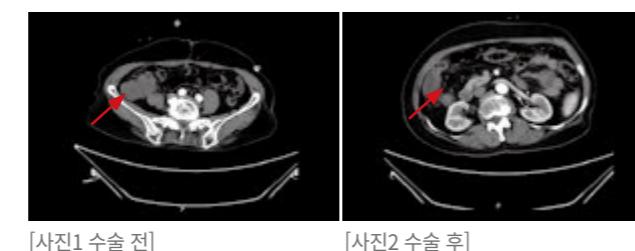


본원에서 대장암 치료 후 2번 재발하여 치료한 경우

여자 78세 환자로 대장암 병기 3기후기로 2019년 1월 9일 상행결장암으로 우측대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보조항암 예정중으로 지내던중 2019년 2월 대퇴부 골절이 발생되어 항암요법이 늦어졌다. 2019년 2월 22일 시행한 복부 전산촬영 수술 근처 부위에 재발 소견이 있어 장내시경으로 확인하였다. 재발대장암에 대해 우선 항암요법 시작을하고 재발 대장암의 호전이 있으면 재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2019년 5월 20일 6차 항암요법후 복부 전산촬영과 PET CT 검사를 시행한바 부분관해를 보여 재발 대장암이 호전되었다. 이때 시행한 대장내시경 소견은 대장암이 소실된 소견을(2019년 8월 12일) 보여 외과에서 항암요법을 더 시행후 수술을 하자 하여 12차 항암요법까지 하였다. 2019년 8월 12일 복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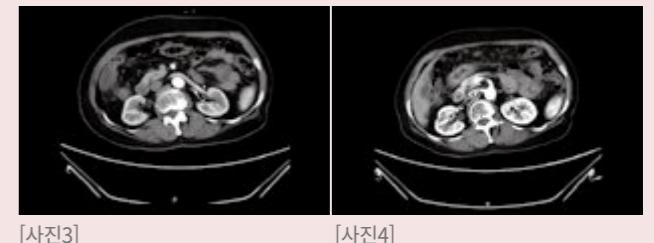
산촬영과 대장 내시경검사에서 재발된 대장암이 완전 소멸되어 수술을 하지않고 추적검사만 하기로하였다.

그러나 추적검사중 2021년 12월 14일 시행한 복부 전신 촬영상 우측 하복부에 약 6cm되는 종괴가 발견되어 대장암의 재발로 판단되었다. 2022년 1월 26일 수술을 하였다. 우하복부 재발된 암종괴를 제거 하였으나 복강내에도 미세한 전이들이 발견되었다.



이후 구제항암요법을 시행하였고 항암요법 6차후(2022년 5월 24일) 시행한 복부 전신촬영상 복강내 작은 전이 소견들이 커지지 않고있어 항암요법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여서 계속 치료를 하였다. 2022년 8월 30일 12차 항암요법후에 검사한 소견은 큰 변화는 없지만 복강내 전이 소견이 약간 보이고 있다.(사진3)

환자는 2022년 7월말에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이 발생되어 장출혈을 동반한 혈변증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이후부터는 항암약제의 한 가지인 혈관생성억제제인 Bevacizumab을 빼고, 또 항암제 투여도 제 때에 규칙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장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23년 1월 9일에 시행한 복부 전신촬영 소견은 복강내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소견(사진4)을 보여 이후 치료는 완화요법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본원에서 수술후 대장암이 재발되어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의 경과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제일 많은 암중의 하나가 되었고, 이전과는 달리 항암요법이 상당히 개발되어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위의 본원환자와 같이 재발 후 치료된 것처럼 말기 대장암이라도 좋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



천안충무병원 신경외과 박재원 과장

1. 개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2. 뇌졸중의 위험인자

뇌졸중의 위험인자에는 조절 가능한 인자와 조절 불가능한 인자가 있다. 나이가 가장 큰 위험인자로 55세 이후로 10세 가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의 위험은 2배씩 증가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으며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 (기왕력), 유전적 요인, 출생 시 저체중 등이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이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기에 엄격한 조절이 필요하다. 흡연은 가장 큰 위험인자 중 하나로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 고지혈증, 심방 세동, 그 외의 심장 질환 (심근 경색, 협심증, 심부전, 심장 판막 질환) 등도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위의 질환들은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들이다. 잠재적인 뇌졸중 위험인자로는 대사 증후군, 음주, 약물 남용, 경구 피임제, 수면 중 호흡장애, 편두통, 고호모시스틴 혈증, 과다 응고증, 염증과 감염증, 무증상 열공성 병변



및 뇌백질 변성 등이 있다.

각각의 위험인자에 대해 알아보자.

- 1) 고혈압 : 혀혈성 뇌졸중(뇌경색) 이후엔 140/90 mmHg, 출혈성 뇌졸중(뇌출혈) 이후엔 130/80 mmHg 미만으로 엄격한 관리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
- 2) 당뇨 : HbA1C (당화혈색소) 7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조절이 필요하다.

3) 고지혈증 : 스타틴 제제의 복용이 필요하며 뇌경색 기왕력이 있는 경우 LDL을 70 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뇌출혈 기왕력이 있을 경우 복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흡연 : 반드시 금연이 필요하다. 뇌졸중 발생 상대 위험도가 2.5 배 이상 증가하며 뇌경색과 뇌출혈 (특히 지주막하출혈) 모두의 위험인자이다.

5) 음주 : 하루 60g 이상 섭취 시 뇌졸중 위험 증가 및 재발률이 상승한다.

6) 비만 : BMI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 몸무게 (kg)/[신장(m)x신장(m)]를 계산해서 23 이상 시 뇌졸중 위험도가 증가한다. 23 미만으로 유지가 필요하다.

7) 육체적 활동 및 운동 : 10분 이상 큰 근육을 사용하는 저항성 운동과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조깅,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 단 혈압과 나이에 맞는 강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8) 식이 : 저나트륨 (하루 염분 5g 이하) 식이를 하며 과일, 야채,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늘리고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9) 약물 : 항혈소판제(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의 복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식사 원칙

A. 음식은 싱겁게 (1일 소금 5g 미만) 먹어야 하며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열량 음식을 피하고 술은 가급적 멀리 한다.

B. 염분이 많은 음식 : 젓갈, 김치, 장아찌 등 절임, 가공식품 (라면, 소시지, 햄)

C. 바꿔 먹을 음식 : 쌈, 샐러드 등 신선한 채소, 자연 그대로의 신선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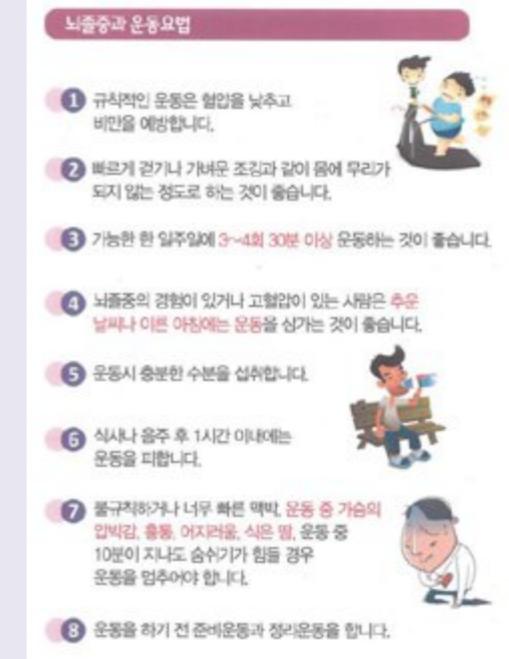
D. 지방 섭취 조절 : 포화 지방(동물성 식품들 : 돼지 및 소기름, 닭 껍질, 치즈, 버터 생크림, 라면 믹스 커피, 프림) 및 트랜스 지방(식용유에 열을 가함 : 마가린, 감자 튀김, 치킨, 도넛, 피자, 햄버거 등)의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 (등 푸른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섭취 한다.

E. 섬유소 : 잡곡밥, 채소, 생과일, 생야채로 섭취. 단 과일은 당뇨환자의 경우 과잉 섭취 주의

3.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식사

1) 운동의 종류

- A. 유산소 운동 : 걷기, 뛰기, 수영, 테니스, 사이클, 에어로빅 댄스 등이 있으며 무릎이나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여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산 분해 효과를 얻고 다양한 혈관 보호인자를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된다. 저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주 3~4회 하는 것을 권고하며 탈수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할 필요가 있다.
- B. 무산소 운동 :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근력 트레이닝 등이 있으며 고령인 경우 운동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뇌졸중과 식사요법

- 세끼 규칙적으로 식사합니다.
- 식사를 되도록 천천히 하여 과식을 피합니다.

적게드세요

- ⇒ 염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 국이나, 피자, 국수, 라면등 국물을 적게 먹습니다.
- 한 두가지 반찬에 간을 해서 먹습니다.

지방(특히 포화지방산) 섭취를 제한합니다.

- 고탕, 설렁탕, 내장류, 오징어 등
- 부침이나 튀김류, 삼겹살 등 눈에 보이는 기름 등

단당류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 사탕, 꿀, 펭, 초콜릿, 엿, 양갱, 과일통조림 등

많이드세요

- ⇒ 신선한 야채와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합니다.
- 콩류, 보리, 현미, 잡곡 등

생선, 미역, 해조류, 견과류(호두, 땅콩 등)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 ⇒ 간식으로 유제품이나 과일을 하루 1~2회 섭취합니다.

신경성 질병

아산충무병원 가정의학과 윤방부 교수
(영서의료재단 회장)



현대에는 신경성(神經性)이란 용어가 꽤 유행인 것 같다. 의학에서는 원인을 모를 때 '신경성'이라고 흔히 말한다. 특히 현대인에게 이러한 신경성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신경성 대장염' 또는 '신경성 위장염'이라는 말이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위장계통의 질환으로 의사를 찾는 사람의 약 30~50%가 이 '신경성 장질환'이다.

이 질환은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또 속이 쓰린 듯하기도 하며, 트림이 나고, 배가 가스 때문에 팽팽해지고, 변비 또는 설사 등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가끔 골치도 아픈 듯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한 경우에는 잠도 잘 못 이룬다.

이러한 환자의 대부분은 대개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불만이다. 이 질환의 원인은 쉽게 신경성이라 할 수 있지만 한 연구 결과의 따르면 이러한 환자의 대장 속의 압력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고 한다. 즉 대장벽의 근육 긴장력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므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질환의 진찰에는 특이한 방법이 없으나 피검사, 대장 X선검사, 항문직장경검사를 실시하여 이 질환과 비슷한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암·염증 등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치료에도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음식은 김치같이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 좋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여야 한다. 또 대변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변기에 앉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간혹 투약을 하여 증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간혹 정신요법이 요구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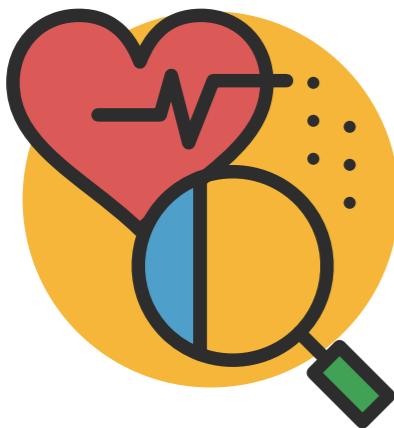
고혈압환자에서의 급사(急死)

아산충무병원 심장내과 신현호 과장



1. 급사의 개념 및 정의

'급사 혹은 돌연사(sudden death)'는 평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생기고 나서 통상적으로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혈관계의 질환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급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상 '돌연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라는 의학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모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약 절반이 '급사'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금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 본다.



2. 고혈압 환자에서의 급사의 기전

실제적 고혈압 환자에서의 예를 보면, 말초 혈관의 높은 압력을 이겨내면서 심장은 계속 하루에 약 10만 번 내외의 박동을 하게 되는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차 심장 자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즉,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심장에 계속 불필요하게 많은 운동을 시키게 되어 심장의 근육도 불어나서 '심비대(心肥大)'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 고혈압이 아니라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이미 고혈압의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심장 중에도 온 몸으로 혈액을 내어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좌심실의 근육이 점차 두꺼워져 소위 '좌심실 비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고혈압 환자 중에는 장기간 적절한 조절을 잘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대개 이러한 '좌심실 비후' 현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심장 박동을 담당하는 심장 근육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요구하게 되어 더 많은 혈액이 이 심장 근육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혈액량에서 그러한 많은 요구를 잘 감당해 내지 못하게 되면 소위 '허혈성 심장질환'의 초래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조성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 자체가 '급사'의 중요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혈압 환자에서 '좌심실 비후'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실성 부정맥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즉, '좌심실 비후'로 심장 자체가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큰 심장에서는 맥박이 고르지 않고 불규칙하게 심장이 박동하게 되는 부정맥의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부정맥에 대한 치료가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잘 이루어 지지 않게 되면 '급사'와 같은 치명적이고 불행한 일이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게도 된다.

선을 강조해 주리라고 본다. 심혈관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높을수록, 흡연을 하거나 비만할수록 이러한 위험도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 환자에서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하여 높다고 판명되면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철저히 잘 교정하도록 하고, 금연은 반드시 하도록 하고, 과음은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싱거운 음식의 섭취와 가급적 소식(小食)을 하는 식사 습관으로 체중을 잘 조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혈압환자는 전방위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질병을 잘 이해하고, 혈압의 적절한 조절과 아울러, 동반 질환 혹은 상황들을 잘 점검하고 다방면적으로 잘 대처하여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참하고 허무한 '급사'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마음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다.

3. 고혈압 환자에서의 전방위적 치료

고혈압 환자들은 심장의 근육에 계속 과도한 부담이 생겨 '좌심실 비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는 점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의사의 진찰 소견에서 이러한 나쁜 현상이 감지되거나 의심이 된다면 더욱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심장내과 의사들은 더욱더 적절한 항고혈압 약제를 처방하고 동시에 여러 생활 습관의 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꼭 박멸해야 할까요?

아산충무병원 소화기내과 민선기 과장



최근 건강 검진을 통한 내시경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수검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부 위장관 내시경 시 환자 스스로 위암 가족력이 있다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의사가 내시경 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가 필요하여 권고하는 일도 빈번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대표적 방법으로는 내시경 생검을 통해 조직을 얻어 현미경으로 직접 균을 관찰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급성요소분해효소검사 [CLO(Campylobacter-Like Organism) test]와 주로 제균 유무 확인 시 사용되는 요소호기검사 [UBT(Urea Breath Test)]가 있다.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 개정안 2020〉이 2021년 발표되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대상과 보험 요건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균 치료 부분은 의료진의 뜻으로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서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H. pylori)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감염성 질환의 하나로 지역마다 유병률이 다양하여 북유럽에서는 11%, 미국에서는 30%로 낮으나 국내 유병률은 50% 내외로 아직도 높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만성 위염부터 소화성 궤양,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 위암까지 다양한 위장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극동 아시아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높으면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데, 2017년 국내 암등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위암 표준화 발생률이 인구 100,000명당 32명으로 갑상선암을 제외한 전체 암종 중에 가장 높았다. 일본의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 위염의 제균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인 모든 대상자를 제균 치료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인구의 절반 정도에서 감염되어 있으나 일부(< 5%)에서만 위암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에 대한 임상 근거가 확실치 않고,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항생제 내성 증가 가능성이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절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의 적응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 발표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은 국외의 진료 지침을 수용·개발하는 방법으로 국내 상황에 맞도록 제정하였으나, 그 개발 방법에 제한점이 있었다.

(본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필요한 절대 적응증은 아래 표1)에 나와 있는 심평원 일반급여(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궤양 반흔을 포함한 소화성 궤양 (위궤양, 심이지장 궤양), 내시경적 절제술한 조기위암, 변연부 B세포 림프종 (MALToma),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ITP) 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논란의 여지가 있던 철결핍성 빈혈, 위선종 제거 후,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에서 제균 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여 그 근거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1. 헬리코박터 감염 제균 치료는 원인 미상의 철결핍성 빈혈을 가진 성인의 일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2. 헬리코박터 양성 위선종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 후 이시성 위암의 발생 예방을 위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권고 할 수 있다.
3.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가능성 소화불량증의 장기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다.

4. 1차 제균 치료로 표준 3제요법 [양성자펌프억제제 표준 용량, 항생제(amoxicillin 1g, clarithromycin 500 mg) 하루 2회 14일 치료를 권고한다.

5. 7일 동안의 표준 3제요법을 1차 제균요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중합효소연쇄반응 또는 염기서열법을 이용한 clarithromycin 내성 검사를 권고한다.

6. 1차 제균 치료로 10일 순차 치료(양성자펌프억제제 표준 용량과 amoxicillin 1g 하루 2회 5일간 사용 후 양성자펌프억제제 표준 용량, clarithromycin 500mg, metronidazole 500mg 하루 2회 5일간)를 권고한다.

7. 1차 제균 치료로 10일 동시 치료 (양성자펌프억제제 표준 용량, clarithromycin 500mg, amoxicillin 1g, metronidazole 500mg 하루 2회)를 권고한다.

8. 1차 제균 치료로서 표준 3제요법에 실패한 경우 2차 제균 치료로서 bismuth 포함 4제 14일 요법을 권고한다.

9. 1차 혹은 2차 치료로서 bismuth 4제요법에 실패한 경우 levofloxacin 포함 3제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상기 1, 2, 3번 권고 내용을 근거로 표1)의 학회 가이드라인 이 제시되었으며 심평원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환자전액 본인부담이지만 이전보다는 폭넓게 헬리코박터 감염 제균 치료 대상을 확대,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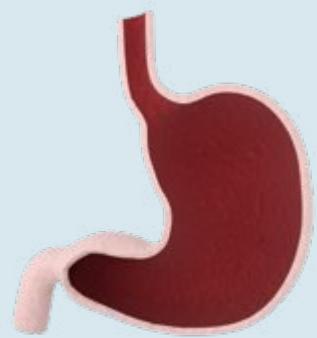


표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대상과 건강보험급여, 환자전액본인부담 기준 정리

진단	심평원 일반급여	학회 가이드라인	심평원100/100 (환자전액본인부담금)	모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성 궤양 - 변연부 B세포 림프종(MALToma) - 조기위암(내시경적절제술후) -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평원 일반 급여 + - 원인불명의 철 결핍성 빈혈 - 선종(내시경적절제술후) - 위암의 가족력 - 위축성 위염 - 기타 진료 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치료	심평원 일반급여	학회 가이드라인	심평원100/100 (환자전액본인부담금)	확인되면 모두 치료

(결 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국내 유병률이 50% 내외에 달하는 매우 흔한 감염이며 소화성 궤양 및 위암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균으로 이에 대한 치료 적응증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1차 및 2차 제균요법을 제시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국가적으로 의료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다. 근래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클래리스로마이신 (clarithromycin)에 대한 내성을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표준 3제요법의 제균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 기간을 늘리거나 순차 치료나 동시 치료와 같은 비스무스(bismuth)를 포함하지 않는 4제요법,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비스무스 4제요법과 같은 방안이 이용될 수 있다. 구제요법의 경우 여러 논문들의 메타분석 결과, 표준 3제요법, 순차 치료, 동시 치료에서 실패한 경우 비스무스 4제요법이 권장된다. 이번 지침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에 대한 제균 치료의 적응증에 대한 권고문은 전문가들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향후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이 있는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위암의 발생을 낮

출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잘 계획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위암의 가족력 역시 위암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환자군에 대한 치료 적응증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천안/아산충무병원 소화기내과에서도 연구 논문에 근거한 임상 치료를 지속하겠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진료의뢰 및 예약 Hot-Line

외래 진료 의뢰 (진료협력센터)
응급실 환자 의뢰
뇌질환 환자 의뢰

041-570-7690
041-576-3047
010-7528-4941

심장질환 환자 의뢰
AVF(동정맥류) 의뢰
전신혈관 치료 의뢰

010-2672-6874
010-8673-3119
010-8673-3119



대표 번호
천안충무병원 041.570.7555

천안충무병원

보건관리실을 소개합니다.



Q. 천안충무병원 보건관리실을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보건관리자 한정아 간호사입니다.

저희 안전.보건관리실은 본관 7층 간호부 옆에 사무실이 있으며 보건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셨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직원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서 '아~ 예방접종 주관하는 부서구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등 직원 예방접종도 담당하지만 직원들의 전반적인 안전과 건강을 주관하는 부서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세세하게는 직원 건강검진 및 상담, 직원 안전사고관리, 작업환경측정 및 보호구지급, 유해물질관리, 건강증진 활동, 보건교육 등을 안전관리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일을 하시면서 힘들거나 보람을 느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간호사로 일선에서만 일하다가 보건관리자로서는 2년이 채 안 되는 신입이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보건 교육도 해야 하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수도 하고 관련법도 찾아가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검진을 하고 상담을 통해 직원들이 새로 알게 되거나 모르고 있었던 건강상태에 대해 알려주고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서 올바른 길을 잘 찾아가는 걸 볼 때면 스스로 뿌듯해 하기도 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출근해서 퇴근까지, 입사해서 퇴사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저희 안전.보건관리실의 최종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의료기관은 환자가 중심인 곳입니다.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직원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건강해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First 직원안전, Best 환자 안전의 슬로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직원 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안전.보건관리실이 직원들이 편하게 드나들면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충무병원

41병동을 소개합니다.



Q. 아산충무병원 41병동을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우리 41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환자가 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실 맞은편 병실은 침상마다 심전도 모니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중환자실처럼 스테이션에 중앙모니터가 있고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 병동에서 환자의 상태 악화 시 우리 병동으로 전동 의뢰되어 중환자실로의 전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병동은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간호사들로 인수인계 방식을 구두 인계에서 서면 인계로 바꾸는 데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는 서면인계로 전환하면서 환자 직접 간호 시간이 증가할 수 있었고 또한 환자의 간호 요구에 빠른 응대를 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감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서면 인수인계 전환은 태움의 요소를 줄일 수 있었으며, 작년 한해 사직률이 가장 적은 병동 이었으며 현재 타 병동에 비해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팀너싱 또한 가장 먼저 시도했으며 이는 환자 안전과 환자 간호에 효율적인 간호방식이며 신규 간호사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신규 간호사가 액팅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 입사 3개월 이후부터 차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간호사는 모든 간호사 및 보조인력 직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환자 안전을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병동입니다.

Q. 일을 하시면서 힘들거나 보람을 느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천안충무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과장님아이 아산충무병원으로 오시면서 항암화학요법을 할 예정인데 우리 병동에서 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전 병원에서 투약했던 경험이 있어서 별거 아니라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되기 전이라 간호 인력과 경력간호사가 부족했었고, 내과 병동이라 입·퇴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았는데 고위험 약물의 준비에서 까다로운 투약 과정은 생각보다 과도한 업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첫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환자가 마지막 16차를 부작용 없이 무사히 마쳤고 그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이 들었던지라 마지막 종료일에 환자가 떡케이크와 꽃바구니, 게다가 모두에게 선물로 양말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기념사진도 촬영하면서 그동안 힘들었지만 참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2023년은 새로운 전산 도입으로 업무의 혼란이 있겠지만 올해도 서면 인계 방식과 팀너싱을 유지하면서 환자 간호와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병동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병동에 오는 신입직원들은 타 병동에 비해 업무 역량이 우월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QI 주제는 <CPR시뮬레이션 통한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으로 선정하여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도 응급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Q.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병동은 환자 간호에 편이한 업무 수행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입원하는 모든 환자, 직원, 가족분들은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천안충무병원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2023년 2월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 및 치료 경로를 따라 의료서비스 전 제공 과정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원은 지난 2022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 4개 영역 520개 항목에 대한 인증조사를 받았고, 2023년 2월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조사위원들은 총평에서 “COVID-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3주기 인증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3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병원으로서 우수한 인적 구성, 경청하는 리더십, 열정 넘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천안지역에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자부심과 열정을 갖춘 전문가로서 천안지역의 의료를 선도하는 환자중심의 병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지혜 이사장님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과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3주기 인증 획득으로 2023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인공신장실(혈액투석실) 증축 새단장

“AK98” 20대, 니프로사의 “UCU-18” 22대로 운영



천안충무병원을 찾는 투석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충무병원은 투석환자 및 가족들을 위하여 투석실 및 대기실 증축·확장 공사를 통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개방감 있고 쾌적한 신장실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안충무병원 인공신장실은 내원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혈액투석 및 치료를 제공하고자, 최신 혈액투석 장비 도입을 통하여 고효율 혈액투석 여과장치, 철저한 수질·감염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정수시설을 갖추고, 투석 중앙공급장치(CDS)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30대의 혈액투석기계에서 새롭게 12대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총 42대의 최신 투석기계(박스터 사의 AK98 20대, 니프로사의 UCU18 22대)가 가동 중이며, 각 침대는 간단하게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한 신식 전동 접이식 침대로, 여기에 1인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투석하는 동안 TV와 음악을 청취하는 등 환자분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장내과 투석전문의가 직접 치료를 맡고 있으며, 전문 지식을 갖춘 간호사와 함께 환자 개개인에 맞는 전문화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충무병원은 24시간 응급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응급투석 역시 가능합니다.

상담 및 진료시간

-내과 외래 : 월~금 오전 08시 30분
~ 오후 17시 30분
(점심시간 12:30~13:30)
토 오전 08시 30분
~ 12시 30분
tel. 041-360-1030

-인공신장실 : 월~토 오전 08시 30분
~ 오후 18시 00분
tel. 041-570-7579, 041-360-1210

-응급실 : 365일
tel. 041-570-7579, 041-360-1119

천안·아산충무병원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간호사가 갖춰야할 덕목 중 친절에 강조하며, 충무병원의 경영이념에 대해 교육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아산충무병원(이사장 이지혜) 2023년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을 각각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권준덕 행정원장이 참석하여 간호사가 갖춰야할 덕목 중 친절을 강조하며, 충무병원의 경영이념에 대해 교육하였다. 이어 병원 및 간호부 철학과 현황, 수혈간호, 감염관리 등 수간호사들과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신규 간호사 교육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신규 간호사들은 간호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각 부서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서의료재단 권준덕 행정원장은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병원의 소중한 인재가 되어주길 바라며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산충무병원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PHIS' 오픈

환자 중심의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



아산충무병원은 휴니버스글로벌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PHIS를 2월 1일에 오픈했다. 아산충무병원은 "환자를 가족처럼"이라는 원훈 아래 환자 중심의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HIS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이라는 평을 받은 휴니버스글로벌의 PHIS를 적용했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PHIS는 ▲클라우드 오픈 API 활용 스마트솔루션 연계 ▲CDSS 기능 강화 ▲CDW 활용 의료 데이터 플랫폼 ▲의료 정보 상시 업데이트 ▲체계적인 PHIS 운영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PHIS는 실제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병원 간에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 수준의 상향 평준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천안충무병원 혈관센터 (투석혈관 오래 쓰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천안충무병원 혈관센터 실장 김기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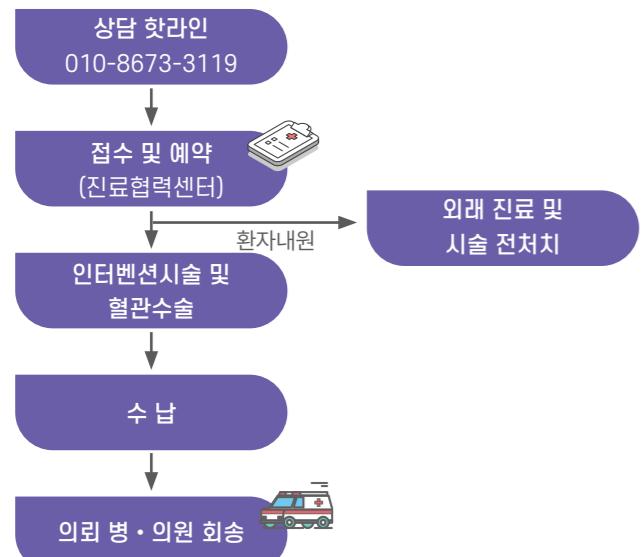
천안충무병원에서는 그 동안에 최신 인터벤션 치료기법으로 학계에서 인정 받은 혈관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혈관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천안충무병원 혈관센터가 지난 2022년까지 투석혈관과 당뇨발 치료와 관련 1만례의 치료 건수를 달성 하였습니다. 이는 팔, 다리 말초혈관 폐색을 개통하는 인터벤션 영상 의학 혈관개통술 치료와 혈액 투석을 위해 사용되는 투석혈관(동정맥류) 조성, 개통 치료등 혈관센터에서 실행하는 치료를 합한 건수입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은 전신마취나 피부 절개없이 주삿바늘 크기의 미세 침습을 통해 혈관 안으로 접근해 질환을 치료하는 첨단 의학 분야로, 투석혈관, 당뇨발, 뇌동맥류, 복부대동맥류, 간암, 양성종양, 출혈 등의 치료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천안충무병원은 투석혈관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혈액 투석을 받다가 혈관이 막히면 이를 재개통하거나 필요시 새로운 투석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환자들이 병원을 찾으려 해매거나 긴 대기시간으로 힘들지 않도록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한 최적화 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원데이 시스템

환자 및 보호자 의뢰 병원의 편의를 위해 원데이 시스템(1DAY SYSTE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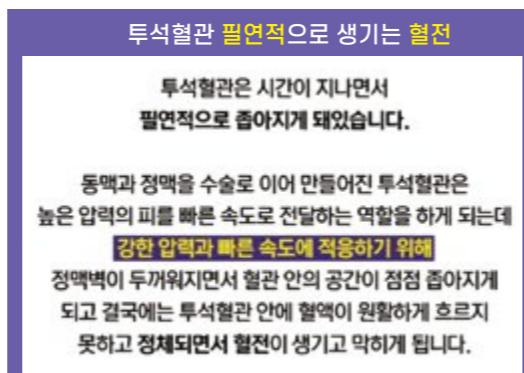
1. 최근에 시술했는데 혈액투석 혈관이 너무 빨리 막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활한 투석을 위해, 동맥-정맥을 연결하여 만드는 투석혈관(동정맥류)은 지속적으로 반복해 사용하다 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쓰려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2. 투석 혈관 왜 막힐까요?

주기적으로 굵은 바늘을 꽂았다 빼길 반복하는 혈액 투석 치료는 상처와 회복 과정을 반복하며 필연적으로 좁아지고 막히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자라난 투석혈관도 반복적으로 강한 압력과 동맥혈이 흐르면 정맥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합니다.



3. 투석을 방해하는 혈관 문제들(협착/폐색/혈전/동맥류)

협착이 오래 방치되고 혈전이 쌓이면 혈류가 차단되고 폐쇄되며 혈액이 젤리처럼 굳는 혈전이 생겨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혈류량과 상부의 협착으로 혈관벽이 부풀고 튀어 올라오는 동맥류는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 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석혈관 정확한 진단! 초기 치료!

협착, 폐색 등의 기능부전이 생긴 투석혈관의 95%는 간단한 인터벤션 시술로 다시 정상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기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혈관이 아예 망가진 경우에는 수술 치료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석혈관에 증상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초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4. 투석혈관 이상신호

- ① 바늘을 찌르는 부위에서 박동이 느껴진다.
(진동이 느껴져야 좋습니다.)
- ② 투석 혈관이 군데 군데 커지거나 부풀었다.
- ③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다.
- ④ 팔이 붓거나 투석후 지혈이 어렵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치료하세요!

투석혈관이 막히기 전 협착 단계에서 혈관이 이상을 발견 했다면 간단한 시술로 정상 복구가 가능합니다. 막히기 전에 빠른 치료는 환자분들의 혈관을 더 건강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국소마취, 최소침습으로 부담이 덜하며 인터벤션 시술로 정상 복구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문제를 방치하여 혈관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수술 치료만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투석혈관이 좁아졌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투석혈관이 막히기 전인 협착 단계에서 이를 알기 위해 증상 확인 및 혈관을 만져보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투석혈관은 많은 양의 오고가는 혈액을 감당하기 때문에 원래는 확장이 되지만, 혈관이 좁아지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정맥인데도 동맥에서처럼 박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며, 이런 증상이 느껴지실 경우 즉시 혈관 개통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투석혈관은 동맥처럼 박동이 느껴지는 대신 저항없이 빠져나가는 느낌인 진동이 느껴집니다.

평소 투석 혈관이 있는 팔은 격한 운동이나 압박, 자극이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증상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치료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에 지역 병·의원 인공신장실 선생님들과 최신 인터벤션 치료 기법과 혈관 초음파 검사, 시술 참관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의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 할 것입니다.



참관을 원하시는 병원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든지 핫 라인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공휴일 5대 국경일(國慶日)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총무과 이규상

언제나 빠르게 시간이 흘러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지나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새해를 맞으면, 가장 먼저 달력을 넘겨보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달력을 넘기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날짜 수를 세며, 이번 연도는 쉬는 날이 많다고 좋아하던 버릇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 있는 많은 공휴일 중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닌 의미 있는 공휴일 5대 국경일(國慶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날만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사를 축하,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월 1일(3·1절),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국경일이 생겨나게 된 과정과 이야기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삼일절(3·1절) 양력 3월 1일 공휴일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 선언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던 날로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에 삼일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 선언일'이라 칭하여 처음 국경일로 기념하였습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임시정부의 국경일 전통을 계승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제헌절(制憲節) 양력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

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입니다. 요즘 어린이들과 바쁜 현대인들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제헌절인지 아닌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데요. 사실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라는 지적이 있따르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 광복절(光復節) 양력 8월 15일 공휴일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한반도가 일제에게서 해방되어 주권을 되찾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독립기념관의 경축식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합니다.

광복에서 광(光)이란 존중의 뜻을 담는 글자로 '영예롭게'라는 뜻을 부여하는 부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이란 일제에게서 해방되어 영예롭게 회복한(光復) 날(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천절(開天節) 양력 10월 3일 공휴일

개천절(開天節)의 의미는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최초로 탄생한 민족국가 고조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날로서 중요한 국경일이죠. 사실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개천절은 음력으로 지켜져 왔지만 음·양력이 환산이 어렵고 10월 3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에 양력 10월 3일이 최종 국경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 한글날 양력 10월 9일 공휴일

한글날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반포와,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알리며 한글 사랑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처음에 한글날은 10월 9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 날은 1926년 11월 4일이라고 합니다. 10월 9일이 아닌 11월 4일에 기념식이 열린 까닭은 조선왕조실록에 훈민정음 기사가 9월 말일에 실렸기 때문에 현 날짜와 다른 날에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40년에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되고, 책이 발간된 때가 음력 9월 10일(그레고리력으로 10월 9일)으로 기록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독립이 될 때까지 기념일은 바뀌지 않았고 1945년 광복이 된 이후에 10월 9일에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위처럼 5대 국경일(國慶日)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국경일을 겸색하고 찾아보며 잠시 잊고 있었던 역사를 기억하게 되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국경일을 통해 모두가 역사를 잊지 말고 되새겨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해부터 국경일과 각 기념일마다 국기를 게양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총무과 이규상



소소한 행복

충무원 사회복지사 최선화

노이 온다.
을해는 유달리 눈이 많이 온다.
12월부터 엄청 오더니 올 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오는 것이 난방비도 올라 꽉
꽉한 한해가 되려나 걱정이 앞선다. 구경
을 지나고 보니 어머님이 안계셔서 혀전
하고 조용하다. 명절에 어머님이 주시는
빳빳한 세뱃돈을 못 받아 서운하다. 8
남매 중 막내 아들며느리로 우리 가족은
어머님과 형제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
이 받았다. 집안에 오랜만에 생긴 우리
아이들 또한 형제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첫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형님들
이 해주시고 해마다 김장도 형님들이 책
임져 주셨는데...어머님이 직접 담근 젓
갈을 듬뿍 넣은 김장 김치도 한통씩 주
실때는 그것이 귀한줄 몰랐다. 사이다처
럼 똑 쏘는 백김치, 전라도갓으로 담근
젓갈 냄새가 나는 갓김치, 매콤한 파김
치....

항상 귀한 걸 누리고 살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 없어져 봐야 귀함을 알고 닥쳐
봐야 안다. 삶도 그러하다. 내가 젊고 아
이들 키우며 살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가장 빛나는 시간인지 모른다.
육아에 지쳐 힘들 때 “아이들 없는 조용
한 세상에 일주일만 살고 싶다”라고 생
각하고 갈망했던 적도 있다. 잠도 늘어

지게 자고 싶었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고 싶었다.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 “아이 키울 때가
가장 행복한 때다~”라고 할 때는 힘들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아이들 어릴 때 아장아장 걷고 말
배우고 할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겠
다. 좋고 귀한 걸 누리고 살면서 항상 부
족하다고 투정부리는 내 자신을 돌아본
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
이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어 먹고
싶다”고 할 때 막연하게 느껴졌다. 이빨
이 튼튼하고 젊었을 때는 누리고 살던
아주 일상적인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지....

이제는 어르신들이 문뜩문뜩 하시는 말
씀에 귀 기울여 듣게 된다.
소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점점 어려워
지는 시간이 나에게도 올 것이고 누구도
피해갈수 없으니 말이다.

충무원에 입소해서 지내시다 건강악화로
생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어
르신께 최선을 다해 대해 드렸나?”하고
반문하게 된다. 충무원에 입사하고 처
음 어르신을 보내드렸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 했다. 그때 원장님께서 “생과 사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
어, 자연스러운 일이야~”라고 말씀해주셨다. 죽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삶의
연속이라고....우리는 모두 나고 죽고 한
다. 자연스럽게.....우리 엄마가 그랬고
내가 그럴 것이고 내 자식이 그럴 것이다.
좋고 귀한 걸 누리고 살면서 항상 부
족하다고 투정부리는 내 자신을 돌아본
다.

눈이 오니 퇴근길이 걱정은 되지만 마음
이 따뜻해진다. 지금 누리고 있는 소소
한 일상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삶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
보련다.



글
사회복지사 최선화



치매 걸린 톰과 늙은 제리

영서원 간호사 조은정

80주년을 맞이하는 톰과 제리 만화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양이와 쥐의 대추격전 만화이다. 1940년부터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으니 엄청난 장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다.
약자인 쥐(제리)를 강자인 고양이(톰)가 추격을 하는데 제리가 강자인 톰을 실컷 놀려주는 걸 보면 통쾌하기도 하고 가끔은 당하는 제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만화를 보았던 기억이 난다. 톰과 제리 둘이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우리 집에도 톰과 제리 같은 서먹한 관계의 인연이 있다. 1남 4녀 중 가장 첫째 되는 하나뿐인 유일한 오빠와 아버지의 사이가 그것이다. 오빠는 제법 공부를 잘해 그 시골에서 서울로 법대를 갔고 변호사라는 꿈을 꾸며 두 부부는 시골 일을 해가며 뒷바라지를 했었다. 10여년을 그렇게 하셨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꿈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실망과 미움과 원망만이 남았나보다. 아버지는 오빠를 보기만 하면 제리를 발견한 톰처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도록 추격전을 벌였다.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괴로울 수 밖에 없었다. 이 추격전의 끝은 언제쯤일까, 끝이 있기는 할까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 끝이 보인다.

톰이 치매가 걸린 것이다. 제리의 존재와 제리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잊혀진 것이다.

삶의 무게를짊어지기가 힘들어서,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이 제 모두 내려놓으라고 치매가 그렇게 왔나보다. 제리 역시 늙었다. 더 이상의 추격전은 없다.

하물며 치매 걸린 톰은 아이처럼 말썽까지 벌여놓기도 한다. 그리곤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있곤 한다. 그래도 그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

산처럼 크고 높기만 했던 아버지~ 80년이 넘도록 인생의 수레를 끌어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제는 해 저물어가는 인생의 끝자락인데 오래도록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사랑해요.



글
간호사 조은정



나에게 주어진 기억 창고

충무노인복지센터 간호조무사 남지영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나에게 흐르는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새삼스레 느끼곤 한다.

예전에 어른들이 말하길 20대는 시속 20킬로의 속도로, 30대는 시속 30킬로의 속도로, 그러다 50대 이후가 되면 거의 고속도로 밟는 속도로 시간이 흐른다고 했던가...!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나로서는 요즈음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나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시간 속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가끔씩 잊고 있었던 예전의 추억,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 그때는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려한 순간 순간들....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나의 시간들을 꺼내어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보면 어느 순간 주간보호센터의 우리 어르신들로 생각이 이어지게 된다.

우리 센터에는 약 10여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다. 다들 고령이시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치매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듯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치매의 경우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항상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유독 타인에게 눈에 띠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있다.

예전에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그러셨다.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그 뒷면의 부모의 모습과 집안 분위기가 훤히 그려진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들이 무척이나 긴장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의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그 뒷면의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히스토리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센터의 한 어르신은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항상 “내가..”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 석자 “박**은요”라며 시작한다. 이러한 표현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그러시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그러고 보니 예전 대학 다닐 때 한 후배 녀석이 항상 그런식으로 말하곤 했는데, 당시에 심리치료학과 선배가 그것은 과도한 자기애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주었던 기억이 있다.

자기애와 자존감은 비슷한 듯 다른 차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기애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고,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결론은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지만 자기애는 강할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애는 매우 중요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필수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도한 자기애의 뿌리에는 불안정함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결핍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로 인해 자신을 과하게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지 않으며 남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항상 모든 이의 관심과 사랑, 집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다보니 자기애가 강한 치매 어르신은 항상 칭찬받고자 하는 행동을 과~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다.

모두들 식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본인의 식사가 끝났다고 타인의 양치컵을 들고 친히 배달 하는가 하면, 금방 빨아넓은 앞치마를 본인이 무조건 개켜야 한다며 5분 간격으로 널었다 걷었다를 반복하신다.

집에 갈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혼자 시간을 착각하셔서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의 외투까지 입혀드리느라 혼자 분주하시다.(덕분에 우리 선생님들은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이 어쩌다 센터에 안 나오시는 날이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해서 세상 고요한 절간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박 어르신은 평소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귀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매번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거짓말 보태지 않고 한 100번은 넘게 들어온 이야기라서 이제는 듣기 지겹다고 거부하는 주변 사람들의 편찬과 구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르신은 세상 밝고 맑은 모습으로 신나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 주신다. 매번 처음 이야기를 해 주시는 표정으로, 아주 진지하게....!

흔히들 치매는 주변인들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더할수 없이 행복한 병이라고 한다. 기억 창고에 담아둔 것만 계속 되새기니까...

우리 박 어르신의 기억 창고에는 어르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어린 시절의 즐거운 기억이 가득 담겨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기억 창고를 행복한 기억으로만 담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그 시대에는 어느 누구하나 삶이 녹록치 않았던 시대였다.

다들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희생을 강요당하며 힘들게 자식을 키우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내야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지만 그러한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며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면서 삶의 끈을 놓치 않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 창고를 함께 나누면서 하루 하루 열심히 생활해 나가고자 한다.

훗날 남게 될 나의 기억 창고를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면서...



글
간호조무사 남지영

슈퍼루키

천안충무병원
구매부슈퍼루키 최승엽

1.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안충무병원 구매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년차 최승엽 사원입니다.

2.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천안충무병원에 입·내원하시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품 및 수액 등을 발주하는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
주한 물품이 적절한 수량이 적기에 입고
가 되는지를 확인하며 물품불출을 통
해 각 병동과 부서에 필요한 물품을 공
급하여 환자치료 및 업무에 차질이 생기
지 않도록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어떤 충무인이 되고 싶으세요?
구매부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생소한 용어가 많지만, 스
스로 찾아 공부하는 것과 배움을 통해
용어로 인한 어려웠던 소통의 문제가 단
계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배움을 통
해 더 많은 지식 쌓아 직원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충무인이 되겠습니다.

4. 각오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업무를 배우고 있어 어느 부분에
선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
수하고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며 퇴보되
는 모습보다 이전보다 더욱 성정하는 모
습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충무병원
중환자실슈퍼루키 박도현

1.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환자실에 입사해서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박도현이라고 합
니다.

2.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주로 중환자실에 오는 환자들의 담당 의
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신 업무를 수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투약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으며, 차지 선생
님들과 함께 환자 백케어를 시행하며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도 필요한 간호도 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어떤 충무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서 늠름한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중환자실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바쁜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응급 상황이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분하기도 못하면서 적응하기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하자고 다짐하며 입사했지만, 자존감이 무너지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직도 일이 어렵고, 여러 일이 겹치면 우
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업무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일에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간호하시는지 지켜
보고 차근차근 배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특성상 환자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지
선생님들께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환자
가 어디가 불편할 거라는 것까지 알고 간
호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느껴졌고, 환
자의 상태가 복 단위, 초 단위로 변해가
는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며, 담당 환
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
환자를 위해 다 같이 일한다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각오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일을 하면서 뿌듯하다는 생각보
다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날들이 더 많긴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나가며 성장할 것
이고 저도 다른 차지선생님들처럼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며 말을 못하는 환
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찰력을
키우며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천안충무병원 9병동

이혜숙 간호조무사



꼭 하늘에서 내려 온 천사가 지상에 계시는 것 같아, 이혜숙 선생님의 교대시간만 기다려지는 병원생활이었습니다. 9병동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분들 모두 힘들고 바쁜 중에도 매순간 힘들고 불편한 기색 없이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분들한테 공감해주고, 똑같은 하루 일과겠지만 불편한건 없었는지 등등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음까지 치료되는 병동이 되었음 좋겠어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선생님이 근무하는 충무병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천안충무병원 12병동

정호숙 간호사



12병동 계신 다른 분들도 친절하지만 특별히 눈에 띠는 간호사님이 계시네요. 설명 하나하나 잘해주시고, 혈관이 보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해주시고, 새벽에 복통이 심해서 벨을 눌러도 빨리 달려와 걱정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격려해주고 격정해주신 정호숙 간호사님을 칭찬해요.

몸 건강하게 잘 쉬었다가 퇴원합니다.

천안충무병원 5병동

강민기 간호사



환자 간호 중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을 듬뿍 실은 말로 대해주셔서 제가 퇴원해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강민기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천안충무병원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이상현 과장, 강승윤 과장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간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8일(월) 오전에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 혈전용해시술을 받았던 이00입니다.

그 날이 일요일 휴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기민하게 시술을 결정하여 혈전용해시술을 진행하셨던 이상현 과장님께는 유선으로 담당과 데스크를 통해 별도의 감사의 전언을 드렸습니다만, 아울러 당시 신속하게 저를 관찰하시고 간호하셨던 강승윤 과장님 이하 응급실 담당의/간호사 및 특히 8일~9일 오전까지 저를 면밀히 돌보면서 크게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응원하신 중환자실 간호사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특정한 어느 분 가릴 것 없이 하나같이 차분하면서도 친절하고 프로다운 모습의 중환자실 간호사님들께 본인과 보호자(배우자)는 감명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9일(월) 일련의 빠른 정밀 진단을 위해 지인이 있는 서울의 대형병원(강남 세브란스)에서 6가지 집중적인 검사를 거쳐 혈전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어제 12일 퇴원과 함께 필요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세브란스 의료진들도 천안충무병원 측의 당시 긴급했던 응급 시술이 매우 효과적이고 합당했음을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9일부터 저는 언어 구사, 신체 행동에 별다른 이상 없이 조심스럽게 활동하며 회복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응급 시술팀과 후속 간호진의 덕이기도 합니다.

재삼, 저희 부부는 당시 전문적인 시술은 물론 8일 오전~9일 오전 응급실과 중환자실 현장에서 돌봐주신 간호사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 늦으나마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심을 기원합니다.

저 역시 귀 병원을 계속 애용하면서 종종 찾아뵙고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안내

최명식 선생님



처음 충무병원을 방문한 탓에 우왕좌왕하던 방문객을 친절하게 도와주시니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병동에 함께 방문해주시니 가뜩이나 환자 보호자로서 우울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최명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천안충무병원 재활치료실

전병민 물리치료사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중 재활치료실에서 운동치료를 받았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환자들을 응대해주시고, 운동치료를 정확하게 해주어서 몸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다는 말을 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전병민 선생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격려와 칭찬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계속 이곳에서 치료를 더 받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천안충무병원 62병동

육다솔 간호사



아기 같이 연약함에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환자들의 짜증난 요구에도 웃음으로 받아주고 항상 미소를 먹음은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도 충무병원에 와서 수술 받고 입원하라고 했더니 그래야겠다고 하네요. 따로 간병인이 필요 없다고 좋아해요. 육다솔 선생님을 최고로 많이 칭찬해주세요.

천안충무병원 10병동

정고운 간호사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하게 주사를 너무 잘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혈관이 안 보여서 주사를 끌으려면 여러번 찔림을 당해야 합니다. 가시에 찔려도 너무 아픈데 차가운 주사 바늘은 늘 겁이 납니다만, 정고운 선생님은 한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곳에 아주 편하게 놓아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최고의 간호사입니다.

아산충무병원 61병동

61병동 쌤들~ 사랑합니다♡♡



새해 들어 세월이 시속 60km로 달린다는 용띠생 이*석입니다. 항상 바쁘게만 살아오다보니 한 번쯤은 며칠 동안이라도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 후 61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코로나 양성반응으로 7일간을 격리실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나의 쉬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별을 받는듯한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수술 후의 통증과 배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수치심, 그리고 고통..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젊은 간호쌤(진* 생략)의 진심 가득한 간호로 인해 견딜 수 있었으며 어쨌든 음성 결과에 따라 출옥하듯이 통합병동에 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매우 순조롭게 골절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또 갑자기 닥친 염증으로 인한 고열과 오한, 복부 통증으로 난생 처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힘든 과정을 보내고 이젠 퇴원을 하루 앞둔 시간.. 처음에는 이름을 몰라 염지척 얘기쌤(은* 생략), 군인쌤(애* 생략) 이렇게 불러가면서 점점 친근해지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61병동 간호쌤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와서는 안 될 곳이지만 다시 만나고는 싶은 따뜻하고 이쁜 61병동 쌤들~ 고**쌤은 빼고 올해는 멋진 남자친구도 사귀고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길 바라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충무병원 소화기내과

설재일 과장



아산충무병원 권*숙 환자 보호자입니다. 저희 엄마는 타병원에서 몇 년을 치료받으면서 여러 번 피 토할 때마다 희망이 없다고 준비하라고 그럴 때마다 전 역장이 무너졌고 눈물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김없이 엄마는 피를 토했고 119불러서 응급실 왔는데 주치의로 설 과장님의 배정되었어요. 피를 토하면 돌아가시는 줄만 알고 있었던 전 응급실 앞 큰 도로 앞에서 큰 비 맞으면서 평평 울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적으로 엄마는 정신을 차리셨고 일어나셨죠. 과장님께서 절 불렀어요. 엄마는 식도정맥류니까 피 토했을 때마다 내시경하면서 뚫으면 되니까 관리만 잘하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까지 위로해주셨죠. 과장님은 저에게 확실한 병명을 주셨죠. “당뇨 간성혼수 식도정맥류” 44세에 홀로 자식 셋 뒷바라지하시고 호강 한번 못해보시고 돌아가시면 어찌나 눈물로 나날을 보내던 그때 생명의 은인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소화기내과 설재일 과장님이셨어요. 엄마에게 일어난 그 기쁨, 과장님에 대한 그 고마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죠. 마음의 고마운 진심을 표창장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무식한 저인지라 짧은 글로 칭찬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네요. 이렇게 훌륭하신 의사님 두신 아산충무병원 칭찬합니당. 설과장님의 창창한 미래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당.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 유재성 과장, 어깨 상완골 골절 치료법 논문 발표 및 SCI 국제학술지 심사위원 위촉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 유재성 과장이 책임저자로 참여한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형외과 수술 관련 학술지인 “Orthopaedic Research Journal”에 게재된 ‘Straight proximal humeral nailing can avoid deltoid atrophy for proximal humeral fracture: A comparison with locking plating’ 논문은 어깨 상완골 골절 치료법에 대한 논문이다.

유재성 과장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깨 상완골 근위부 골절 환자에게 3세대 금속정 고정법을 시행함으로써 삼각근을 보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고식적인 금속판 고정법 시행 시에는 불가피하게 삼각근의 솔후 위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3세대 금속정 고정법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어깨 상완골 골절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 받았다.

한편, 유재성 과장은 다수의 SCI급 국제학술지의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정형외과 수술 결과에 대한 임상 논문을 SCI급 저널 22편을 포함, 총 80여편을 발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폭넓은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정형외과 수술과 근골격계 분야의 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Orthopaedic Surgery and Research(정형외과연구학회지)’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충청남도 교육청, 영서원에 후원금 및 쌀 30포대 전달



영서원은 지난 1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와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의 후원금과 쌀(20kg) 30포를 전달 받았다. 이번 후원금과 쌀 30포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어르신들을 위해 뜻 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유홍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병도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새해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서원 현은영 시설장은 “진심어린 후원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시는데 보태도록 하겠다. 강력한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균 즉석검사

헬리코박터균 쉽고 빠르게 즉석에서 검사하세요!



핼리코박터균 즉석검사는

-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어 환자의 고통과 불편함이 없습니다.
- 단 한번 호흡샘플을 채취하여 측정합니다.
- 20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핼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이란?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위암의 원인균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전안충무병원(내시경실) 041.570.7554
아산충무병원(소화기내과) 041.536.6692

“서울에서만 누리던 호텔식 시설과
유기농 항암영양식단!”

천안퍼스트힐요양병원



암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양과 재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누구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암치료의 후유증과 전이와 재발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환자와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40~50대 암환자가 증가하면서 암치료 중에 필요한 요양과 면역관리, 암 이 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암재활이 필수적입니다.

암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통한 암케어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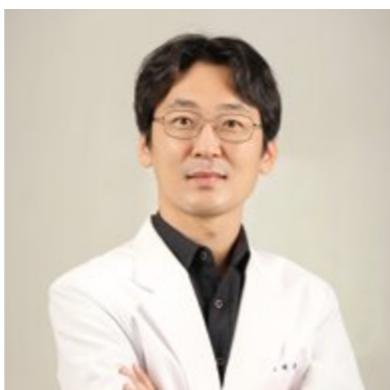
- 외래센터, 단기/ 장기 입원
- 방사선치료, 항암 부작용 및 면역관리
- 치료 후 면역증진 관리
- 고주파온열치료, 면역치료
- 통증치료, 도수치료
- 고압산소치료, 피부케어

천안퍼스트힐요양병원은

특화된 암진료를 통해 치료 후유증을 완화하고, 환자의 치료와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 암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원 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암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인생 2막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안퍼스트힐요양병원 심재훈병원장(내과 전문의)



천안퍼스트힐요양병원 병원시설 안내



독립형 구조의 입원실

1인실 뿐만 아니라 다인실도 1인실처럼 프라이빗한 입원생활이 가능한 호텔식 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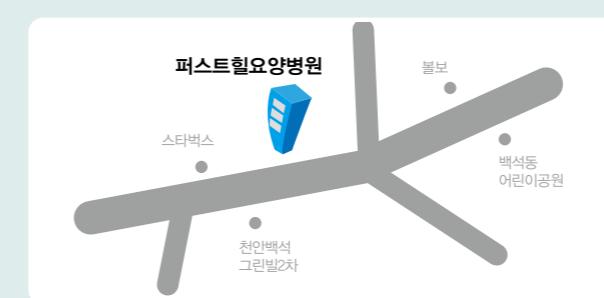
통합암센터

고주파온열치료, 통증치료, 고압산소, 도수치료, X-ray검사, 피부케어, 주사치료



편의시설 황토찜질방, 족욕실, 인근공원

항암영양식단 환자 건강별 맞춤 식단



이용안내

진료시간 : 365일 24시간 진료

입원상담 : 010-5885-0078 (문자, 전화)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99,

홈페이지 : www.firstheal.co.kr



외래진료안내 [천안충무병원]

2023. 03. 02 기준

진료과	전문의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소화기내과	360-1039, 1040			
김병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소화기질환,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간암	
정지현	월 화 목 금 토	월 화 금	소화기질환, 위대장내시경, 췌담도진료, 치료내시경,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박범수	월 수 목 토	월 수 목	소화기질환(위장관, 간, 췌담도), 소화기내시경, 소화기암	
김세인	화 수 금 토	화 금	소화기질환(위장관, 간, 췌담도), 소화기내시경	
이지영	월~토	월~금	위 · 대장질환, 간, 담도, 췌장 질환, 대장 치료 내시경	
심장내과	360-1024			
강홍선	월~토	월~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부정맥, 심방세동	
김철민	월~금	월 화 목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심장판막질환, 부정맥	
호흡기내과	360-1023, 570-7563			
신계철	월~금	월 화 목	호흡기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기관지내시경	
김영	월~토	월~금	호흡기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기관지내시경, 기관지질환	
내분비내과	360-1173			
손영석	월~토	월~금	당뇨,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비만	
신장내과	360-1030			
백은기	월~토	월 화 수 금	급만성신염, 신증후군, 신부전, 오로감염, 혈액투석, 당뇨성 신장병, 고혈압 및 고혈압성신장병, 혈뇨, 단백뇨	
조성호	월~토	월~금	부종, 고혈압, 만성콩팥병, 혈액투석, 신장질환	
신경과	360-1038			
최문성	월 수 금 토	월~목	치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두통, 어지러움증, 밀초신경질환	
이재성	월~토	월 수 금	뇌출증, 뇌혈관질환(뇌혈관마사술), 두통, 어지러움증, 밀초신경질환, 뇌전증	
소아청소년과	360-1083			
신학휴	월~토	월~금	소아/청소년 질환, 성장발달, 소아아토피, 유학검진, 학생건강검진, 예방접종	
정시준	월~목	월 수 목	열성경련, 뇌전(간질)등 경련성질환, 운동/정신발달장애, 만성두통, 영유아검진, 육아상담	
가정의학과	360-1019			
박성민	금 토	월 화 목 금	건강증진센터 결과상담, 소화기내시경, 비만클리닉, 금연클리닉, 피부질환 및 피부레이저, 성인병	
신경외과	570-7571			
이호근	화 수 금 토	월 목	뇌출혈/뇌혈관질환, 두부외상, 척추손상, 척추디스크, 척추미세현미경수술	
이상현	월 목 토	화 수 금	뇌혈관질환, 뇌혈관시술, 두부외상, 뇌종양	
김재현	수~토	월 화	뇌혈관질환, 뇌혈관시술, 두부외상	
박자원	월 화 토	수~금	뇌혈관질환,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시술, 두부외상, 안면마비, 두통, 뇌동맥류, 뇌혈관협착	
정형외과	570-7581, 360-1047			
안덕호	목 토	월 화 수 금	고관절질환, 고관절염, 고관절인공관절치환술, 무릎인공관절, 골다공증, 근골격계 외상 및 하지골절, 퇴행성관절	
김광현	월 화 목 토	수 금	건/주관절질환(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오십건, 테니스엘보 등 상과염), 슬관절질환, 관절경, 인공관절	
어일주	월 수 금 토	화 목	건주관절질환 (회전근개오십건, 테니스엘보), 슬관절질환, 관절경, 인공관절, 근골격계외상	
정세훈	화 수 금 토	월 목	슬관절질환, 고관절질환, 퇴행성관절염, 인공관절, 관절경, 골다공증, 근골격계외상	
심장혈관총부외과	360-1169			
김정태	월~토	월~금	흉부외상 및 흉강경수술, 성인심장수술, 혈관질환수술, 동정맥루조형술, 하이브리드수술, 폐암, 식도암	
일반외과	360-1082			
김기상	월~토	월~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치질, 간·담낭·췌장, 지방증, 대장내시경	
홍성곤	월~토	월~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치질, 간·담낭·췌장, 지방증	
정원준	월~토	월~금	대장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대장내시경, 탈장, 단일공복강경수술, 담석증, 외상, 화상	
정신건강의학과	570-7571			
이정태	월~금	월 화 목 금	알콜증독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조현병, 우울불안장애, 조울증, 성인정신질환	
비뇨기과	570-7567			
정호현	월~토	월~금	요로결석, 남성의학, 전립선질환, 음낭 및 음경질환, 오로감염, 방광질환	
종양내과	360-1169			
이승세	월~금	월 수	폐암, 소화기암 및 기타 암 (항암치료전문)	
유방갑상선외과	570-7666			
홍성훈	월 수 금 토	월 수 금	유방 · 갑상선	

진료과	전문의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성형외과	570-7685			
박병일	월~토	월~금	미용성형, 안면외상 및 재건, 종양재건, 흉터성형 및 레이저	
구강외과(치과)	570-7566			
이지혜	월~토	월 화 목 금	소아치과, 치주질환, 구강악면외과, 교정, 임플란트	
김여갑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구강악면외과, 턱관절외과	
김태균	월~토	월~금	소아치과, 치주질환, 구강악면외과, 교정, 임플란트	
김민희	월~토	월~금	소아치과, 치주질환, 구강악면외과, 교정, 임플란트	
김은실	월~토	월~금	구강검진	
진단검사의학과	570-7631			
안제준	월~토	월~금	감염관리전문의사, 수혈의학, 검사의학	
마취통증의학과	570-7563			
김동수	월~토	월~금		
최수은	월~토	월~금	마취통증의학	
배정호	월~토	월~금		
재활의학과	360-1144			
박찬혁	월~토	월~금	중추신경재활, 뇌신경재활, 척수손상재활, 관절통증, 근전도	
영상의학과	570-7543			
이도연	월~금	월~금	영상진단 및 판독, 전신촬영 및 비혈관중재술	
정종구	월~금	월~금	영상진단 및 판독, 초음파	
권태안	월~토	월~금	영상진단 및 판독, 초음파	
정구성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중재적 시술, 영상진단 및 판독	
하일현	월~금	월~금	비수술적 혈관질환 치료, 비수술적 종양치료, 영상진단 (종양질환, 혈관질환 전문)	
산부인과	360-1012			
조진호	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자궁내시경수술, 부인종양, 비뇨부인과, 경년기장애	
김승국	월~토	월~목	불임, 경년기, 부인질환, 복강경 수술	
이서영	월~토	월~금	산부인과 검진 전문	
병리과	360-1026			
조상호	월~토	월~금	조직 및 동결결절	
김규호	월~토	월~금	조직 및 동결결절	
직업환경의학과	570-7635, 7585			
김영준	월~토	월~금	건강증진, 직업환경의학, 예방의학	
정은석	월~토	월~금	사업장 보건관리 및 산업보건의	
이철현	월~토	월~금	예방의학, 사업장 보건관리	
김교현	월~토	월~금	감염관리전문의사, 예방의학, 사업장 보건관리	
안세진	월~토	월~금	근로지특수검강검진, 직업병,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응급의료센터	570-7519, 7520, 360-1119			
김재우				
강승운				
최일국				
이상현			24시간 응급 진료	응급의료체계, 중환자응급, 외상응급, 종독학, 소아응급, 소생학, 내외과응급, 산부인과응급
최민우				
조현영				
안승배				

진료시간은 병원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8:30~오후 5:30(점심시간 : 오후 12:30~오후 1:30) / 토요일 오전 8:30~오후 12:30



외래진료안내 [아산충무병원]

2023. 03. 02 기준

진료과	전문의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소화기내과	536-6691/6692, 336-6150/6151			
	이정일	월~목	월~목	간암, 간경변, 간염, 지방간, 위장관 질환
	민선기	화 목 금 토	화 목	위·대장질환, 긴, 담도, 췌장 질환, 대장치료 내시경
	설재일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위·대장질환, 긴, 담도, 췌장 질환, 대장치료 내시경
	이정록	월~금	월 화 목 금	위·대장질환, 긴, 담도, 췌장 질환, 대장치료 내시경
심장내과	536-6660/6658, 336-6235/6236			
	심원흠	월 화 수	월 화 수	대동맥증재시술, 말초혈관증재술, 승모판 확장술, 각종 심장질환
	신현호	화 수 목 금	화 수 목 금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동맥경화증, 부정맥
	장기설	월~토	월 목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 & 말초혈관증재시술
	최대식	월 화 수 금 토	화 수 금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관상동맥&말초혈관증재시술, 심박동기시술
	이동훈	월 화 수 목 토	월 화 목 금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질환
호흡기내과	536-6674			
	남태현	월~토	월~금	폐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황재준	월~토	월~금	호흡기질환, 폐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내분비내과	336-6198			
	홍주영	월~토	월~금	당뇨, 갑상선, 골다공증, 부신, 비만, 뇌하수체
신장내과	536-6673, 336-6183			
	이설라	월~토	월~금	급만성신염, 신증후군, 신부전, 요로감염, 혈액투석, 당뇨성 신장병, 횡문근융해증, 혈뇨 및 단백뇨
	황성조	월~토	월~금	급만성신염, 신우신병, 말기신장병, 투석, 고혈압, 당뇨, 혈뇨, 단백뇨, 전신부종, 전해질 이상, 혈관초음파
신경과	536-6626			
	홍기무	월~토	월~금	뇌졸중, 두통, 치매, 어지러움, 파킨슨, 뇌전증, 안면신경마비, 손발저림, 손떨림증
소아청소년과	536-6678, 6630			
	이금노	월~토	월~금	호흡기알레르기, 소화기질환, 소아내분비질환(성조숙증, 저신장, 소아당뇨), 영유아검진
	김혜은	월~토	월 화 수 금	감염, 호흡기알레르기, 소화기질환, 영유아검진
	박준형	월~토	월~금	감염, 호흡기알레르기, 소화기질환, 영유아검진
가정의학과	536-6748			
	윤방부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가정의학, 노인의학, 피부, 정신건강, 비뇨기, 스트레스, 만성피로, 항노화, 영양요법
	유진호	월~토	월 화 수 금	가정의학, 노인의학,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예방접종, 만성피로 영양요법
신경외과	536-6663, 6664, 6662			
	임정규	월 수 목 토	월 수 목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증재술, 두통, 두부외상, 어지럼증
	박강혁	화 목 금 토	월 화 목 금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증재술, 두통, 두부외상, 어지럼증
	김동희	월 화 수 금 토	화 수 금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증재술, 두통, 두부외상, 어지럼증
정형외과	536-6647, 6648, 6765, 6780			
	조성우	월 화 목 토	수 금	척추, 고관절 질환, 골절, 인공 고관절 수술
	안재용	월 수 금	화 수	고관절, 슬관절, 골절, 인공관절수술, 관절경
	김연준	화 수 토	월 목 금	슬관절, 족부, 족관절, 골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스포츠 손상, 외상
	유재성	월 목 금 토	월 수	어깨, 관절경, 스포츠손상, 외상
	황창환	수 금 토	월 화 목	척추, 슬관절, 고관절, 골절, 인공관절수술, 관절경, 족부, 족관절
척추과	536-6675, 6160			
	하호균	월 목 금 토	화 수	척추미세현미경, 내시경수술,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척추골절, 신경차단술, 시술
	김진성	화 수 토	월 목 금	척추내시경수술(최소침습),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척추외상, 신경성형술, 치단술
심장혈관총부외과	536-6581			
	황정주	월~토	월~금	호흡기 질환, 일반흉부질환(기흉, 폐암, 식도암), 흉부·혈관질환, 흉부·혈관외상
일반외과	536-6668, 6669			
	정학재	월~토	월~금	위·대장·직장암, 담석증, 탈장, 치질, 복강경수술, 외상, 포경수술, 화상
	권순하	월~토	월~금	위·대장·직장암, 담석증, 탈장, 치질, 복강경 수술, 외상, 화상
	박재준	월~토	월~금	위·대장·직장암, 담석증, 탈장, 치질, 복강경 수술, 췌장증양, 유방·갑상선
정신건강의학과	336-6227			
	정문용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기분장애(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노인정신(우울, 치매), 수면 장애, 조현병
비뇨의학과	536-6677			
	서준규	수 목 금	화 수 목	요로결석, 요로감염, 남성의학, 전립선질환, 음낭 및 음경질환, 방광질환
	김영수	월 목 토	월	배뇨장애, 전립선 질환, 요로생식기 감염, 여성 방광염, 남성의학, 소아비뇨생식기 질환
	이충현	월 화 토	수 금	요로결석, 요로감염, 남성의학, 전립선질환, 음낭 및 음경질환

진료과	전문의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안과	336-6199			
	박세민	월~토	월~금	백내장, 녹내장, 각막질환, 망막질환, 택시운송사업 의료적성검사
피부과	336-6223			
	유희준	월 화 금	월 금	아토피, 피부염 및 알레르기질환, 무좀 및 조갑백선
성형외과	536-6782			
	윤근철	월~토	월~금	미용성형, 안면외상 및 재건, 종양재건, 흉터성형 및 레이저
구강외과(치과)	536-6689			
	송명성	월~토	월 화 목 금	통합치학-치주질환, 보존치학, 임플란트(외과진료), 소아치과, 보철치학
진단검사의학과	536-6522, 6523			
	최종현	월~토	월~금	검사실 전반
이비인후과	536-6778			
	안희영	월 목 금 토	수 목 금	코막힘, 코골이, 축농증, 구강인후두, 음성장애, 난청, 이명, 어지럼증, 두경부증양
	홍남표	화 수 목 금 토	월 화 목 금	중이염, 비과질환, 난청, 어지러움증
마취통증학과	536-6620, 6621			
	김현수	월~토	월~금	
	이종진	월~토	월~금	마취통증의학
	김기선	월~토	월~금	
재활의학과	536-6650			
	전희원	월~토	월~금	뇌신경재활, 척추손상재활, 근골계통증, 신경차단시술, 연하장애
영상의학과	536-6654			
	오배근	월~토	월 화 수 금	영상진단 판독, 인터벤션, 초음파
	박소윤	월~금	월~금	영상진단 판독, 초음파
	김형천	월~토	월~금	영상진단 판독, 초음파, 비침습적 중재술(영상유도, 종양치료 및 혈관치료)
산부인과	536-6688			
	박충학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자궁근증, 용종, 난소증양(낭종), 노년기 질환
	김수곤	월~토	월 화 목 금	자궁경수술, 복강경수술, 단일공 복강경수술, 자궁근증 및 난소 종양
응급의학과	536-6519, 6619, 6719, 6747			
	김우진			
	나준호			
	성태영			
	윤철수			
	유경환			
	김지혁			
	손준원			
	전치현			

24시간 응급진료
외상응급질환

진료시간은 병원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8:30~오후 5:30(점심시간 : 오후 12:30~오후 1:30) / 토요일 오전 8:30~오후 12:30